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명희 『혼불』의 서사 구조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혜숙

## 논문개요

『혼불』은 5부 10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 체계이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은 방대한 서사 체계를 이끄는 중심 줄기의 영역보다는 끝까지의 영역에 속하는 부차적인 서사만을 중시하고, 작품의 세 갈래의 이야기 축들이 인과적, 논리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구조로 중심적인 서사를 밝혀내지 못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문법에 기대어 『혼불』이라는 방대한 서사 체계의 중심 줄기를 이루는 서사를 하나의 구조로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밝혀내 보았다.

‘매안’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는 중부 청암부인 중심의 ‘훼손→회복’의 서사 과정과 그 이후의 ‘회복→훼손’의 서사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뺏겨와 가문’이라는 서사적 핵심에 의해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이 내포하는 의미는 ‘뺏겨와 가문 지키기’라 할 수 있다.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는 이전의 서사 과정에서 도달한 ‘회복 상태’에 또다른 ‘훼손 가능성’이 맞물리고, 여기에 다시 ‘훼손 과정’이 결합하는 ‘회복 상태→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뺏겨와 가문’이라는 서사적 핵심이 여기에서도 저변에 깔려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 서사 과정은 이전 서사 과정의 의미와는 다른 이씨 가문의 ‘뺏겨와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 중 손부 효원 중심의 ‘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에 도달 실패’라는 서사 과정이 나타난다.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으로 시작되어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다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맞물리므로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 ‘삽입’의 양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은

‘핏줄과 가문 지키기 실패’를 의미한다.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인 춘복과 옹구네, 우례, 백단과 만동은 양반 대 상민과 천민이라는 대립항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여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 즉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을 기본적인 시퀀스로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의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핏줄과 신분’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서사 과정의 의미는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서사 과정과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각각 기본적인 시퀀스인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하는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불』의 서사를 이루는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서사 과정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인 시퀀스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는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확장된 ‘근본과 뿌리’라는 서사적 핵심에 의해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가 다른 두 갈래와는 상이한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와의 결합으로 브레몽의 보편적 서사문법으로 설명하기 힘든 『혼불』만의 서사문법이 생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합은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가능한 사건들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로 기능하고 있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조선 민족,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에 자신의 존재와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가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결합하여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으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의 의미는 '근본과 뿌리 찾기'라 할 수 있다.

『혼불』의 세 갈래의 이야기는 각각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고, 그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결합하면서 복합적인 시퀀스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세 이야기가 결합한 복합적인 시퀀스를 작품의 중심적 서사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적 서사 구조를 통해 양반 계급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친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설명해낼 수 있다.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확장되어 '근본과 뿌리'라는 서사적 핵심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에서 '근본과 뿌리 찾기'라는 '회복 과정'에 대한 긍정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훼손 과정'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에 따라 매안 중심의 서사가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핏줄과 신분'에 의한 '봉건적 질서'가 작품 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서사가 양반 계급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1
2. 연구 방법 .....	7
II. ‘매안’ 중심의 서사 구조 .....	12
1.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구조 .....	13
1) 종부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훼손→회복’의 구조 .....	13
2) 청암부인 중심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회복→훼손’의 구조 .....	18
(1) 이씨 가문 중심의 ‘회복→훼손’의 구조 .....	19
(2) 손부 효원 중심의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 도달 실패’의 구조 .....	29
2.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구조 .....	37
1)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훼손 상태’와 그 의미 .....	38
2)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훼손→회복’의 구조 .....	43
III.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구조 .....	64
1. 서사의 확장과 결합 .....	65
2. 만주 봉천 중심의 ‘훼손→회복’의 서사 구조 .....	77
IV. 『혼불』의 서사 문법과 그 구조적 의미 .....	82
V. 결론 .....	89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혼불』은 작가 최명희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 같은”<sup>1)</sup>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시킨 전체 5부 10권 108장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1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 아니다. 문단의 관심과 평가가 인색했던 가장 큰 이유는 5부 10권에서 더 나아가는 이야기의 전개가 남아 있다는 작가의 말<sup>2)</sup>로 인해 완간 이후로 본격적인 연구를 미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 최명희는 이후의 이야기를 집필하지 못한 채 1998년 세상을 떠났고, 작가를 잃은 데 대한 애석함을 표하며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혼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혼불』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중점이 된 것은 작품의 서사 방식, 주제, 장르 등이다. 그 중 서사 방식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진다. 우선, 『혼불』의 서사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sup>3)</sup>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김경원은 『혼불』에 ‘상당한 분량의 고전문학 작품이 빈번하게 삽입되어 서사적 흐름을 끊

---

1) 최명희,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리브로』, 한길사, 1996 겨울호, p.9.

2) 한길사에서 간행된 5부 10권이 완결이 아니고,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격동기를 인물들이 겪어 나가는 5권 분량의 이야기 전개가 더 남아 있다는 작가의 견해를 밝힌 인터뷰 기록이 있다. (작가 조명 인터뷰, 「모국어는 우리의 혼입니다」, 『문학사상』, 1997.12, p.75.)

3) 김경원,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는 작업」, 『실천문학』46호, 1997년 여름호, pp.410-419.

정호용, 「박물지의 형식」, 『황해문화』14집, 1997년 봄호, pp.373-380.

백지연, 「핏줄의 서사, 혼찾기의 지난함」, 『미로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 비평사, pp.174-193.

황국명, 「『혼불』의 서술방식」,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145-174.

음으로써 지루함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며, 풍속묘사도 '작품 내적인 융화를 이루기보다는 풍속사의 한 대목을 날 것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작품의 구성방식을 소설 구성상의 결합이라 말한다. 정호용도 『혼불』의 서사 방식을 '박물지의 형식'이라 말하고, 이것이 서사의 중심을 흐뜨리는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지적한다. 백지연 역시 작가의 집요한 사실 복원의 욕망으로 인해 서사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황국명도 작품의 서사 방식이 작중 인물의 서사 가능성을 희석시키고, 결과적으로 시간성 배제로 인한 지체와 일탈, 구성의 파편화를 이룬다고 말한다.

이들과는 반대로 『혼불』의 서사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sup>4)</sup>를 내리는 논의들이 있다. 강은혜는 『혼불』이 판소리의 서사 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서사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문학적 전통을 현대소설로 변용해내는 서사화 과정을 밝혀준다고 말한다. 김열규도 작품의 서사적 특징은 '신비와 현실 사이에 일종의 낭만적 짐비오제(통합), 곧 총체적 융합'을 이끌어내는 '수평적 확산'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민족문학의 한 범주를 이룩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현선 역시 판소리의 서사 방식과 관련하여 『혼불』의 서사 특징을 지적하면서 '본줄기와 결가지가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상호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화합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를 넘어서는 서사문법을 개척했다'고 평가한다. 장일구도 작품의 서사 기법이 판소리의 연행방법을 계승한 우리식의 '이야기' 차원이라 논의하고 있다.

주제에 대한 고찰들도 논자에 따라 상반된 두 양상을 나타낸다. 작품의 주제를 분석한 뒤,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의<sup>5)</sup>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의<sup>6)</sup>가 있다.

4) 강은혜, 「『혼불』의 서사원리」,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87-143.

김열규, 「민속지적 서사문학의 진형을 위하여」, 『한길문학』8호, 1991년 봄호, pp.205-218.

김현선, 「『혼불』, 우주적 상상력의 총화」, 『문학사상』302호, 1997. 12, pp.76-88.

장일구, 「『혼불』의 서사 구성 역학」,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175-212.

5) 이덕화,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 『혼불』에서의 여성의 운명」,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261-295.

이덕화는『혼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가부장적 의식이며, 소설의 모든 갈등과 불행이 가부장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김경원은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양반중심적 세계관이며, 백제 신원(伸冤)과 위안의 미학이라고 지적한다. 백지연도 작품에서 ‘핏줄의 서사’, ‘피섞기의 욕망’, ‘뿌리 찾기’ 등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핏줄과 가계의 소중함을 신비화하는 중세적인 논리들’일 뿐이라 말하면서 『혼불』의 역사적 저울이 봉건지주 계급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장세진은 이 작품이 변동사회의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지배계급의 몰락사와 피지배층의 의식변화를 쫓는 작가의 역사인식 내지 상황파악은 치명적인 약점’이라 평가한다.

이정숙도 작품에서 가부장적 세계관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실리적 생존인으로서 강한 한국 여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자들과 차이가 있다. 강은혜는 작품이 균열하는 부권의 질서를 보여주면서 국가적 단위의 균열의 원인을 근원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뿌리를 놓치고 부유하는 부권의 부재를 만남으로 이어주는 정서적 고리가 되어줄 힘의 원천으로서의 모권’을 지적하고, 그것이 ‘반상과 남녀의 괴리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형으로 부각된다’고 평가한다. 한편 김현선은 『혼불』의 중심적인 사상을 업과 해원이라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우주삼라만상의 개체라는 층위에서 진정한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이두 역시 작품에서 전통적인 여인의 한을 읽어내고 있다.

『혼불』은 특이하게도 장르 규명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한 작품이다. 한길사판 표지에 따라붙은 ‘대하예술소설’이라는 명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sup>7)</sup>하면서 작품의 장르를

---

김경원, 앞의 글, pp.410-419.

백지연, 앞의 글, pp.174-193.

장세진, 「역사공간과 여성성」, 『한국대하역사소설연구』, 도서출판 훈민, 1998, pp.147-165.

6) 이정숙, 「『혼불』, 해원의 신탁행위」,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297-327.

강은혜, 앞의 글, pp.87-143.

김현선, 앞의 글, pp.76-88.

천이두, 「최명희의 『혼불』과 한의 여러 모습들」,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237-260.

새롭게 구분하는 논의<sup>8)</sup>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열규는 『혼불』을 ‘가족 서사시’ 또는 ‘가문체 서사문학’이라 규정하고, ‘여성 주축의 삼대기’를 특이 사항으로 지적한다. 또한 그는 그 이후의 논의에서 이 작품을 ‘역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사의 사건과 민속지와 그리고 자연지라는 세 가지 코드’에 의한 ‘역사-민속지적인 서사물’이라 평가하고, 생태비평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작품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정숙은 『혼불』을 가족사 소설로 보고 있고, 천이두는 이 작품을 가족사 소설의 성격이 약하게 드러나는 대하소설의 하나로 규정한다. 방민호는 작품을 ‘공간적 대하소설’ 또는 ‘공간소설’이라 말한다. 한편 김경원은 역사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대하소설로 볼 순 없고, 오히려 작품에 나타나는 남녀간의 어긋난 애정, 정체성 확인의 욕구로 인해 이 작품이 인기를 얻은 것이므로 대중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서사 방식, 주제, 장르 측면에서 『혼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이 작품의 서사 구성상의 특성 때문이다. 『혼불』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관혼상제, 각종 민속놀이, 복식, 예절, 향약 등등의 다채로운 풍속을 복원하고, 고조선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탐구하며, 방대한 양으로 배경을 서술하는 등 ‘수평적 확산’을 통해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혼불』의 서사 방식의

---

7)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황국명과 박현선의 견해를 들 수 있다. 황국명은 『혼불』의 사건의 시간이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이라는 점에서 ‘대하소설’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술소설’이라는 명칭도 ‘예술지상주의나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의미한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박현선도 ‘대하예술소설’이라는 명칭은 예술과 소설의 상하관계를 망각한 표현이고, 그것을 ‘본격소설’로 이해한다고 해도 ‘본격소설’이 장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황국명, 앞의 글, pp.147-148. 참조. 박현선, 「최명희 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01, p.15. 참조.)

8) 김열규, 앞의 글, pp.205-218.

김열규, 『『혼불』의 생태비평』,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29-56.

이정숙, 앞의 글, pp.297-327.

천이두, 앞의 글, pp.237-260.

방민호, 「무채색의 서사로 완성시킨 소설미학의 새로운 지평-서사의 수평적 확산을 통한 공간소설로서의 『혼불』」, 『리브로』, 1997년 봄호, pp.24-27.

김경원, 앞의 글, pp.410-419.

특성 때문에 ‘중심 줄기에 비해서 곁가지가 너무 많아 이야기의 지체와 일탈이 두드러지고, 그들의 연계 또한 유기적 인과적 선조적이지 않다’<sup>9)</sup>는 것이 기존의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논점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풍속의 복원 등과 같은 서사는 『혼불』이라는 방대한 서사 체계를 이끄는 중심 줄기의 영역보다는 곁가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풍속의 복원, 역사적 탐구, 배경 서술 등은 작품의 중심적인 서사가 아닌 부차적인 서사일 뿐이다. 물론 앞서 거론했듯이 이와 같은 부차적인 서사가 『혼불』에서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고, 이것이 작품의 특징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상을 해명해야 한다면, 부차적인 서사의 양상 역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혼불』이라는 방대한 서사 체계를 이루는 중심 줄기는 간과한 채 중심 줄기에서 곁가지가 뺏어 나가는 양상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의 중심적인 서사보다는 그 외의 부차적인 서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혼불』이라는 거대한 서사 체계의 전체상을 해명한다고 해도 부차적인 서사의 양상 파악에 앞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서사의 흐름, 즉 중심적인 서사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혼불』은 그것이 소설이든 아니든 간에<sup>10)</sup> 서사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에는 그것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고, 그로 인해 본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인과적, 논리적 줄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혼불』에도 작품을 1권 첫 장에서 10권 마지막 장까지 이끌어나가는 중심적인 서사가 존재할 것이다.

『혼불』의 중심 줄기, 즉 중심적인 서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

9) 황국명, 앞의 글, p.146.

10) 『혼불』의 구성 방식이 기존의 소설의 구성 방식과 다르고, 그것을 우리 소설의 편협성을 벗어나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간 것이라 평가하여 ‘소설’이라는 표지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논의도 있다. (장일구, 「교감의 언어, 우리네 이야기」, 『문학정신』, 1997년 봄호, pp.268-280.)

말할 순 없다. 앞서 살핀 작품의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 기존의 논의들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축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안아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풍속의 복원 등의 부차적인 서사를 제외한다면, 『혼불』의 서사를 세 갈래의 이야기의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물이 속한 공간적인 배경과 인물 유형을 분류 기준으로 한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들이다.<sup>11)</sup> 이 중 한 두 갈래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나 세 갈래의 이야기 축 제시에만 머무는 것은 작품의 중심적인 서사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없다. 즉, 세 갈래의 이야기 축이 인과적, 논리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구조로 중심적인 서사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sup>12)</sup>

앞서 언급했듯이 『혼불』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일관적인 중심 서사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세 갈래의 이야기 축 모두가 포함되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서사일 것이다. 문학 작품 분석은 그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의 논리적, 인과적인 줄거리, 즉 중심 서사에 대한 규명이 문학 작품 분석의 시작점이고, 그렇기에 작품 분석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혼불』은 부차적인 서사가 비중 있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 갈래의 이야기 축에 의한 방대한 서

11) 『혼불』의 인물들을 매안 이씨 가문의 인물들, 종가의 노비와 거명굴의 인물들, 만주 봉천 중심의 인물들로 분류하는 것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이다. “청암부인과 매안 이씨, 소외된 집단, 심진학과 간도 중심의 인물군”으로 인물 유형을 분류한 이윤영의 논의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윤영, 「혼불론-인물 유형과 갈등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44집』, 2000.5, pp.451-466.)

12) 앞서 살핀 주제에 대한 논의들 중 가부장적 세계관, 양반중심의 세계관, 전통적 여인의 한 등을 지적한 논의들은 매안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지배층에 천착한 논의들도 다른 두 축의 서사는 포함하고 있으나 만주 봉천의 이야기를 간과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뗏줄의 서사’, ‘피쉬기의 욕망’, ‘뿌리 찾기’로 서사의 축을 파악해내 세 갈래의 축을 모두 다루고 있는 논의도 있으나 그것들 사이의 인과적, 논리적인 연계점을 밝혀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중심 서사로 보진 못했다고 판단된다.

사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 갈래의 이야기 축 모두가 포함되는 하나의 구조로 작품의 중심적인 서사를 분석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혼불』의 중심적인 서사를 분석해내려고 한다. 즉, 『혼불』이라는 방대한 서사 체계의 중심 줄기를 이루는 서사를 하나의 구조로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논의의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

『혼불』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총 5세대에 이르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5부 10권에 걸쳐 담고 있는 거대한 서사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풍속의 복원, 역사적 탐구, 배경의 서술 등의 부차적인 서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일관되게 이끌어어나가는 중심적인 서사를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부차적인 서사, 즉 곁가지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즉 서사에는 반드시 사건과 그 사건에 연관된 인물이 존재한다.<sup>13)</sup>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를 일으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야기이다. 바꿔 말한다면, 이야기는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인물들에 의해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서사 과정(narrative process)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불』이라는 거대한 서사 체계에서도 사건과 그것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인물들에 의한 서사 과정을 분석해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중심적인 서사

---

13) 미케 발(Mieke Bal)은 서사학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면서 “서사 텍스트는 행위 주체(agent)가 있는 서사물과 관련된 텍스트이다.(…)사건은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전이이다. 그리고 행위자(actor)는 행위를 주도하는 주체이다.(…) 여기에서 행동하다(to act)는 사건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행위자, 즉 인물과 그들이 주도하거나 경험하는 행위로 인한 다른 상황으로의 전이, 즉 사건이 서사의 구성 요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p.15-17.)

구조를 파악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물이 사건에 의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해 나가는 양상으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부차적인 서사를 탄력적으로 수용한 중심 서사의 구조를 구축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혼불』은 한명의 주인공에 의한 단선적인 이야기를 전개한다기보다는 다수의 등장인물들이 각각 구성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갈래를 추려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다수의 인물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선 동일한 범주의 이야기들로 통합해 이야기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인물이 속해 있는 공간적인 배경과 인물 유형을 고려하여 전체 서사에서 이야기의 갈래를 추려낼 수 있다. 우선, 전체 서사를 전라도 전주 근교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의 이야기로 나누고, 매안 중심의 이야기를 다시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의 노비, 거멍굴의 천민과 상민들 중심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앞서 문제 제기했듯이 『혼불』의 중심적인 서사 구조를 밝혀내려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논리적, 인과적으로 관련시켜 세 이야기 축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브레몽이 보편적 서사 문법으로 유형화한 ‘훼손-회복’의 서사 모델<sup>15)</sup>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심적인 서사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그 이유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여러 인물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내고, 그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조로 그려낼 수

14) 여기에서 종가의 노비를 거멍굴 인물들과 같은 유형으로 본 이유는 그들이 상민과 천민이라는 신분 계급 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식적 측면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선, 앞의 글, p.166, 참조.)

15) 브레몽의 서사 모델은 Communication 8호에 발표되었다. 본고는 NLH 11호의 영역본과 황석자의 『현대 불비평의 이론과 실제』에 실린 한역본을 참고로 하였다. (C. Bremond, “The Logic of Narrative Possibilities” in *New Literary History* 11, tr. by E. D. cancalon, 1980, pp.387-411. 브레몽, 황석자 역, 「가능한 이야기의 논리학」, 『현대 불비평의 이론과 실제』, 신아사, 1993, pp.178-200.)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불』의 세 갈래의 이야기 축도 브레몽의 서사문법에 의해 하나의 구조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브레몽은 문학작품의 구조, 즉 ‘항존하는 것 또는 불변의 것의 체계’<sup>16)</sup>를 드러내는 일종의 서사문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변의 것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진척시키는 기능’<sup>17)</sup>이고, 그렇기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up>18)</sup> 인물들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행동을 통해 사건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레몽은 인물들의 행동이 이끄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구분해내고, 그것들의 조합을 사건 진행의 기본 구조로 설정한다. 즉, 인물들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의 서사 과정에서 그 전개 양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단계들을 구분해내고, 그 단계들의 조합으로 사건 전개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능성(virtuality)·과정(process)·결과(outcome)라는 세 기능(function)들의 3단계의 조합을 기본적인 시퀀스(sequence)<sup>19)</sup>로 설정한 ‘훼손-회복’의 서사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sup>20)</sup> ‘훼손’이란 인물들이 ‘가능성, 과정, 결과’라는 3단계의 기능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일으키면서 예전의 상태보다 더

16) 한일섭, 「서사문학 플롯의 현대적 개념」, 『서강인문논총』 제 9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8, p.256.

17) 한일섭, 같은 글, p.258.

18) 브레몽은 자신의 서사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이야기의 원자인 기본 단위는 행동, 사건에 적용되는 기능으로서의 행동’이고, ‘사건은 시퀀스로 연합되어 이야기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다. (C. Bremond, op., cit., p.387-389.)

19) 롤랑 바르트는 브레몽의 표현을 빌어 ‘하나의 시퀀스’란 연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핵단위’들의 논리적인 연속’이라 말한다. 김치수는 이에 대해 ‘핵단위’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매듭들’이고, ‘시퀀스란 「핵단위」들의 논리적인 연속’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시퀀스란 이야기를 이루는 논리적, 인과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김치수 편저,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적 구조분석」,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흥성사, 1980, pp.83-89, 참조. 롤랑 바르트,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같은 책, p.114, 참조.)

20) 브레몽에 따르면, ‘훼손-회복’의 서사 모델의 기본적인 시퀀스는 세 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일어날 행동, 또는 예견되는 사건의 형태로 과정의 가능성을 여는 기능이다(가능성). 둘째는 행동이나 일어난 사건의 형태로 이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기능이다(과정). 그리고 마지막은 도달된 결과의 형태로 과정을 끝맺는 기능이다(결과). (C. Bremond, op, cit, pp.387-389.)



했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인물들은 사건에 의한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나아가거나 그와 반대로 ‘회복 상태’에서 ‘훼손 상태’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 ‘훼손-회복’의 서사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레몽의 개념으로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시퀀스이다. 그리고 브레몽은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 갈래의 이야기, 즉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서로 결합한 전체 서사 과정, 즉 복합적인 시퀀스를 『혼불』의 중심적인 서사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 그리고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를 각각 살펴 그 ‘훼손-회복’ 서사 과정을 밝혀내고, 그들 사이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 II장에서는 ‘매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속한 두 갈래의 이야기를 살핀다. 먼저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 이야기의 ‘훼손-회복’의 구조를 살필 텐데, 종부 청암부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훼손→회복’의 서사 과정과 그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회복→훼손’의 서사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는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라는 소제목 하에 그들 각각의 ‘훼손 상태, 회복 가능성, 회복 과정’이 앞서 분석한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해석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를 살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선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것을 분석하고, 그 ‘훼손→회복’ 구조를 살펴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결합하는 양상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의 결합을 통해 중심 서사 구조가 갖는 의미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

22) 최명희, 『혼불』, 동아일보사, 1983, p.477.

## II. ‘매안’ 중심의 서사 구조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 모델은 ‘가능성, 과정, 결과(상태)’라는 세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 기본적인 시퀀스는 다시 그 기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룬다. 이제부터 『혼불』의 세 이야기 축이 어떤 내용으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어떤 양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할텐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 이야기 갈래 중 하나를 중심축으로 삼으려 한다. 즉,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것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세 이야기 갈래 중 하나를 중심축으로 놓고 분석을 행한다는 것이다.

『혼불』의 3권 중반까지의 초반 서사는 청암부인을 주축으로 한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인물들과 그들이 연관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청암부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서사에서 다른 두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세 이야기가 작품의 서사를 이룬다. 기존의 이씨 가문의 이야기에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천민과 상민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의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삼아 그것이 어떻게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다른 두 이야기 갈래가 이에 어떤 양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인물이 속한 공간적 배경에 따른 ‘매안’ 중심의 서사, 즉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 각각의 ‘훼손-회복’ 구조를 살펴 그 결합의 양상을 분석해내 보기로 한다.

---

23) 이런 의미에서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는 『혼불』의 세 갈래의 이야기 중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가장 선명한 서사적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작품의 장르에 대한 논의들 중 이 작품을 ‘가문체 서사문학’, ‘가족사 소설’ 등으로 규명하는 견해들이 이를 입증한다고 판단된다. (김열규, 앞의 글, pp.205-218, 참조. 이정숙, 앞의 글, pp.297-327, 참조.)

## 1.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구조

서사, 즉 이야기는 인물과 사건에 의해 구성되며, 사건에 의해 인물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는 청암부인을 중심으로 한 서사 과정과 그 이후의 서사 과정으로 구분된다.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이 작품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4)</sup>는 점도 그 구분의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에 비추어 볼 때 두 서사 과정이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청암부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훼손→회복’의 구조인 반면 그 이후의 서사 과정은 ‘회복→훼손’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 서사 과정이 각각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밝혀내보려 한다.

### 1) 종부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훼손→회복’의 구조

『혼불』에서 ‘훼손’과 ‘회복’의 기본적인 시퀀스의 양상을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분석해보면, ‘연쇄’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즉, ‘가능성, 과정, 결과’의 세 가지 기능들로 구성된 기본적인 시퀀스에 의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가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과 맞물림으로써 이씨 가문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이라는 것이다.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의 단초는 그녀의 시부(媿

---

24) 『혼불』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로 청암부인을 꼽는 것은 거의 모든 논의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 대표적인 논의로 ‘청암부인의 등장, 청암부인의 업장, 청암부인의 치상과 회고’가 이야기의 핵심이고,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겉가지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김현선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김현선, 앞의 글, p.78.)

25) 각주 21번, 참조.

父)의 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청암부인의 시부는 박복한 사람이었다. 초취의 여인 박씨 부인, 재취 여인 한씨 부인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부친이 물려준 재산도 어느 결에 절반가량 줄어들고 만다. 여기에 더해 삼취 여인 홍씨 부인은 시부의 정을 얻지 못하자 그악스럽게 패물을 모아들이다가 어느 날 그 패물들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관리하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으니 종가의 재산도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 한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준의와 차남 병의를 위해, 종가의 종부 자리를 어떻게든 비워놓지 않기 위해 문중에서 김씨 부인을 보쌌 해오지만 이번에는 준의가 청암부인과 혼인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숨을 거두고 만다.

이렇게 해서 이씨 가문은 ‘훼손 상태’에 이른다. 시부의 운명으로부터 비롯된 이씨 종가의 참담한 상태가 종가와 가문의 관계에 의해 때안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다.

“종손은 종중의 기둥일세. 우리들은 가지야. 종손은 대대손손 바른 핏줄을 보전하여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하느니”

문장은 어린 종손에게 몇 번이고 타이른다.(중략)

그러니 종가의 번성은 일문(一門)의 뿌리가 깊고도 탄탄하게 뻗어 나가는 것과 같고, 문중의 창성은 일문의 줄기와 가지가 울창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손을 귀하게 아껴 존중하고, 또한 문장을 받들어 존경하였으니, 두 사람의 존재야말로 문중의 다른 대소가에는 하나의 상징이었으며, 구심점이 되는 구체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종손은 한 ‘종중의 기둥’이고, 그런 종손이 있는 종가는 한 가문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종부의 자리를 지켜야 할 세 명의 부인을 연이어 떠나보내고, ‘종중의 기둥’이

26) 최명희, 『혼불』 1권, 한길사, 1996, pp.95-96. 이후의 인용문은 한길사판을 인용하는 것이며, 권수와 쪽수만 표시한다.

되어야 할 종손 준의가 숨을 거둔 시부의 운명은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청암부인은 ‘무너져 가는 고가(古家)의 지붕과 묵은 흙냄새를 풍기며 푸슬푸슬 먼지를 날리던 행랑채, 덩그라니 집채만 남았을 뿐, 거기 사람의 훈김이 없던’(1권, 88쪽.) ‘훼손 상태’의 이씨 가문의 종가에 흰 소복을 입은 청상의 몸으로 ‘종부’로서 신행을 오게 된다. 여기에서 ‘종가의 종부’라는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청암부인의 신행이라는 사건이 ‘훼손 상태’의 이씨 가문을 ‘회복 가능성’으로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종가의 종부로서 청암부인이 이씨 가문에 들어선 사건에 의해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라는 ‘결과’가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이라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종부(宗婦), 나는 그저 그 한 사람의 아낙이 아니고 청상과부 한 사람 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는 핏줄과 흘러가야 할 핏줄의 중허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목숨 하나 던지는 일이 살아 남는 일보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으나, 남아서 할 일이 있어, 나는 할머니님, 당신처럼 죽지 못하였습니다.<sup>27)</sup>

‘종부’란 ‘핏줄의 중허리를 받치고 있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가문과 ‘핏줄’을 이어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 것이다. 그렇기에 청암부인은 ‘남의 가문의 뼈대를 맡은, 무거운 책임’(3권, 164쪽.)으로 ‘한 사람의 아낙’이 아닌 ‘종가의 종부’로서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2권, 245쪽.)라는 각오로 살아가게 된다. 준의의 죽음으로 끊겨 버린 종가의 ‘핏줄’을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가의 핏줄 보전이 가문의 그것과 곧장 이어진다는 점에서 청암부인의 신행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훼손 상태’의 이씨 가문은 ‘회복 가능성’이라는 또다른 기능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sup>28)</sup>

27) 1권, pp.240-241.

28) 여기에서의 ‘훼손 상태’와 ‘회복 가능성’의 결합은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 즉 하나의 사건이

‘회복 가능성’에 이어 청암부인을 주축으로 한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이 나타난다. 청상의 몸이었기에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 준의의 아우 병의의 첫 아들인 기체를 양자로 들이고, 종부로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 보쌈을 거부하는 등의 사건이 있으나 이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은 청암부인의 의지로 이루어낸 ‘청호(淸湖)’라는 저수지 공사이다. 물이 항상 모자라 걸핏하면 샘이 바닥을 드러내는 매안에서 청암부인은 뒷산에 있는 방죽을 저수지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하고, 그 공사 중에 커다란 ‘조개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흙더미에 묻혀 있던 조개 모양의 바위를 파내고 사람들은 이제 조개가 물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씨 가문의 가운(家運)이 창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에는 저수지 공사나 조개바위의 발견이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 보다는 ‘회복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전의 서사 과정에서의 시부의 운명, 즉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서사 과정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자연 마음속에 양심이 솟아 엉뚱한 이씨 문중 대종가의 부인들, 만남박씨, 청주한씨를 비명에 잡아가고, 남양홍씨 부인을 달아나게 하였다고 수군댔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청암부인의 초립동이 신랑 준의를 열여섯의 나이에 조세(早歲)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조개가 그렇게 캄캄한 흙 속에 파묻혀 짓눌린 채 목이 말라 있으니 자손이 번성할 리가 없다고들 하였다. 산 속에 묻히는 것은 곧 죽음이고, 죽음은 무덤을 의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조개는 용궁의 신령님이라고도 했다.

그 신령님을 이제 종손부 청암부인이 구해드렸다.<sup>29)</sup>

---

하나의 관점 안에서 동시에 상이한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암부인의 실행이라는 사건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청상의 몸이라는 점에서 종손의 부재라는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녀가 종부라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29) 2권, pp.31-32.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부로서의 청암부인의 등장이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기 전의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는 부인들과 장남 준의를 잃은 시부의 운명이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야기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훼손 과정’은 ‘용궁의 신령님’인 조개바위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암부인이 조개바위를 구해내 원을 풀어준 사건은 가문과 핏줄을 이어나가야 할 종부와 종손을 잃어버린 ‘훼손 과정’을 극복하여 말랐던 조개에 물이 오르는 것처럼 가문이 창성해 나가는 ‘회복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수지 공사와 조개바위 발견의 ‘회복 과정’으로서의 기능은 저수지가 완성되기 조금 전의 한일합방과 매안의 저수지 공사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안의 사람들은 저수지 공사를 서둘렀고, 저수지가 완성되자 한일합방으로 인한 통곡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한일합방이라는 시대적인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저수지 공사라는 사건이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으로서 절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씨 가문은 일가가 번창하여 청암부인의 손자 강모가 효원과 혼인하는 ‘회복 상태’로 나아간다. 저수지 공사라는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가문과 핏줄을 이어나갈 종손과 종부라는 요건을 갖추는 ‘회복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 매안에서의 종부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브레몽의 서사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서사 과정은 ‘가능성, 과정, 결과’라는 기능들이 ‘연쇄’의 양상으로 결합하여 ‘훼손 상태’가 ‘회복 가능성’과 맞물리고, 그것에 ‘회복 과정’이 기능함으로써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시퀀스이다. 종부와 종손을 잃은 시부의 운명에 의해 ‘훼손 상태’에 이른 이씨 가문에 핏줄을 이어나가고 가문을 지키는 종부로서의 청암부인의 신행이라는 사건이 ‘회복 가능성’이라는 기능으로 결합하고, 여기에 저수지 공사와 완성이란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이씨 가문이 ‘회복 상태’에 이르는 ‘훼손→회복’의 기본적인 시퀀스, 즉 구조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sup>30)</sup>

그리고 이 서사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의 핵심은 ‘핏줄과 가문’이다. 종손과 종부의 부재라는 ‘훼손 상태’에서 그 ‘훼손’이 의미하는 바가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고, 종부로서의 청암부인의 신행과 저수지 공사라는 ‘회복 과정과 회복 가능성’에서 그 ‘회복’이 의미하는 것도 ‘핏줄과 가문의 보전’이기 때문이다. 이 서사 과정을 통해 이씨 가문이 도달하는 ‘회복 상태’ 역시 ‘핏줄과 가문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내포하는 의미는 ‘핏줄과 가문 지키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의 의미를 밝혀내는 토대가 된다.

## 2) 청암부인 중심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회복→훼손’의 구조

『혼불』의 실질적인 서사 진행은 1936년부터 1943년까지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청암부인의 손자 강모와 그의 부인 효원의 혼인으로부터 서사가 시작된다.<sup>31)</sup> 본 장에서는 이 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어떤 양상의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는지, 즉 이씨 가문을 어떤 상태로 이

---

30) 김은경은 『토지』 1, 2부의 서사를 ‘최서희 중심의 서사’로 보고, 이를 브레몽의 서사문법에 기대어 ‘훼손→회복’의 구조라 분석하면서 ‘고귀한 신분의 주인공이 갖은 시련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식의 ‘옛날 이야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도 청암부인이라는 인물에 의한 ‘영웅의 일대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명희의 청암부인에 대한 애착이 그녀의 성격을 ‘신이나 영웅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 설정하게 했다고 평하는 이윤영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은경, 「토지의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p.13-17, 참조. 이윤영, 앞의 글, p.453, 참조.)

31) 그러므로 앞서 살폈던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훼손→회복’의 서사 과정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두어 그것을 살펴본 이유는 ‘핏줄과 가문’이라는 그 서사의 핵심이 본 장에서 분석할 서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핏줄과 가문 지키기’라는 그 의미가 이 서사 과정의 의미를 밝혀내는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끌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에서 ‘회복 상태’에 도달한 ‘핏줄과 가문’이 또 다른 ‘훼손 가능성’과 맞물림으로써 ‘훼손 과정’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가 ‘훼손 가능성’이라는 기능과 결합하면서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의미의 ‘훼손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핏줄과 가문’이라는 핵심을 그대로 이어나가지만 그것의 흔들림을 의미함으로써 이전 서사 과정과는 상이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 중에 청암부인의 손부 효원에 의한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sup>32)</sup> 비록 결말 부분에서 ‘회복 과정 실패’에 도달하지만 청암부인의 뒤를 이은 종부 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씨 가문 중심의 ‘회복→훼손’의 구조를 살피고, 그 후에 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회복 가능성’, ‘회복 과정과 실패’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 (1) 이씨 가문 중심의 ‘회복→훼손’의 구조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은 ‘창씨개명’이다.<sup>33)</sup>

32) 이와 같은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시퀀스인 동시에 그 안에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브레몽이 ‘가능성, 과정, 결과’라는 기능들의 결합을 기본적인 시퀀스로 보고, 기본적인 시퀀스가 또다시 여러 형태로 결합하면서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시퀀스로서의 그 결합의 양상은 ‘삼입’이라고 할 수 있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33) 작품의 서사 진행에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훼손 가능성’은 강모와 효원의 혼인 중 표주박 술잔에 묶은 명주실 타래가 엉키는 사건(1권, 23-25쪽.)이다. 강모와 효원이 ‘핏줄과 가문’을 이끌어갈 종손과 종부이기에 ‘실이 얽히면 앞날에 맺힌 일이 많아 그만큼 고초가 심하다’(1권, p.24.)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씨 가문에 어떤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표주박을 맞바꾸다가 실이 엉키는 사건은 그것이 혼인의 마지막 절차이므로 종손과

금수도 제 종자 자기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고 이름 또한 그렇게 불리거늘, 우리가 소를 돼지라고 하고 돼지를 닭이라 부르는 일이 있는가? 하물며 사람이 어찌 조상의 성을 버리고 근본을 바꿀 수 있을까. (하락)”<sup>34)</sup>

이토록 우습게 왜놈의 성으로 창씨를 할 양이면, 무엇 하러 이다지도 애가 갖는 가문을 지키고 핏줄을 보전할 것인가.

“창씨개명이라니……말이 안된다.”<sup>35)</sup>

창씨개명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조상의 성’을 버려 그 근본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문을 지키고, 핏줄을 보전’하지 못하는 일인 것이다. 인용문에서의 화자인 청암부인 뿐 아니라 종가에 양자로 들어온 종손 기채도 ‘한 가문의 문을 닫는 일’(1권, 267쪽.)이라고 하여 창씨개명을 핏줄과 가문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창씨개명이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창씨개명이라는 사건이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이 뒤흔들리는 또다른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면서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에서 도달한 ‘회복 상태’에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하기로 결정하자 종가의 종부로서 핏줄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한 평생을 살아온 청암부인은 ‘한 생애가 허사로다’라고 한탄하고, 결국에는 실섭(失攝)을 하게 된다. 창씨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1권 7장의 제목이 ‘흔들리는 바람’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핏줄을 이어나가고 가문을 지키려는 청암부인의 ‘바람’이 창씨개명으로 인해 뒤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

종부의 결합이라는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 과정 중 실이 얽힌다는 점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이것은 ‘=’의 결합을 나타낸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그러나 이 사건에 의한 ‘훼손 가능성’은 속신에 의한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암시이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서사 과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4) 1권, p.208.

35) 1권, p.232.

수 있으므로 장의 제목 자체가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씨개명에 이어지는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은 가뭄으로 인해 ‘청호’가 조개바위의 모습이 드러날 정도로 마르는 사건이다. 앞선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저수지 공사와 조개바위는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이자 ‘회복 과정’으로 기능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닥을 드러낼 만큼 마르는 사건은 저수지 공사와 조개바위 발견으로 인해 도달했던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에 곧바로 또 다른 ‘훼손 가능성’이 결합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바치던 물 속의 조개바위가 검은 등허리를 내밀어 버린 것이 한 달여 전의 일이다.

그 때 인월택은 안서방이 조심스럽게 전하여 주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농사의 풍흉보다 훨씬 더 깊은 불길함을 그 속에서 느꼈던 것이다.<sup>36)</sup>

이씨 가문의 인물 중 하나인 인월택이 느끼는 것처럼 저수지가 마르고, ‘용궁의 신령님’이므로 문중과 종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리라 믿었던 조개 바위가 드러나버린 사건은 종가의 앞날이 불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수지 공사와 조개바위의 발견이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했듯이 저수지가 말라 조개바위가 타들어가는 사건 역시 이전 서사에서의 ‘회복 과정’을 무화시키는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면서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에 맞물리는 것이다.

이후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사건<sup>37)</sup> 중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

36) 2권, pp.31-32.

37) 쇠여울네라는 민촌 아낙이 기채에게 대들고, 쇠스랑으로 종가의 대청마루를 찍는 사건(3권, 27-39쪽.)도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종가의 불길한 앞날을 느낀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것은 망혼제가 치루어지는 밤에 일어나는 강모와 그의 사촌누이 강실의 상피(相避) 사건이다.<sup>38)</sup> 상피, 즉 근친상간은 ‘가문을 뿌리부터 흔들어대는 상징적인 금기위반’<sup>39)</sup> 이므로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은 그 자체로도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의해 종손 강모가 매안을 버리고 만주 봉천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상피 사건이 이 이후의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 결합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종가의 종손으로 ‘가문의 무거운 기대, 종손에 대한 허울뿐인 기대’(3권, 54쪽.)에 짓눌려 자신이 ‘핏줄과 가문’이라는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나포되어버린 불쌍한 사람’(2권, 92쪽.)이라 생각하고, 구름 같은 방랑과 자유를 꿈꾸던 강모는 결국 자신의 유약함을 견디지 못한 채 강실을 범하고 만다.<sup>40)</sup> 그리고는 이 사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 하다가 결국에는 사촌형 강태를 따라 만주 봉천으로 떠나버린다.

하늘 아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란 없는 법. 이윽고 드러나게 될 상피의 죄가, 덕석말이, 몰매로만 끝나지 않고 파문에 이르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중략)

그보다는 맨 처음으로 누군가와 맞닥뜨려 토설해야 하는, 이 얼굴을 무엇으로도 가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얼굴 앞에 정면으로 맞서서, 붉은 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낱낱이 밝혀야 하는 그 참담한 순간을 생각하면, 그는 자지러들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제 강모는 강태를 따라 낯선 곳으로 떠나갈 수 있게 된 것이

38) 김윤식이 한길사판에서 3권 3장 ‘젓은 옷소매’까지의 이야기인 동아일보사판 『혼불』에서 ‘그 한가운데 놓여 압도적인 비중을 띤 것이 ‘망혼제’라고 말하고, 강모와 강실의 상피사건을 분석하고 있는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윤식, 「헤겔의 시선에서 본 『혼불』」,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pp.57-86.)

39) 백지연, 앞의 글, p.200.

40) 종손인 강모가 가문과 집안을 벗어나 방랑과 자유를 꿈꾸는 것이 ‘핏줄과 가문’을 뒤흔드는 일을 의미하므로 이 자체를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물의 성격이지 사건이 아니므로 브레몽의 서사문법에 기댄 분석에서 제외시킨다.

다. 강태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사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는, 물을 것도 없고 알 바도 아니었다.(중략)

어쨌든 떠나기만 하면 된다.

매안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것이다. 어디든지 더 먼 곳으로. 세상의 막바지까지라도.

그렇게 달아나 버리면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sup>41)</sup>

사촌누이 강실과의 상피 사건이 밝혀지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은 강모를 매안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든지 더 먼 곳’으로 달아나고 싶게 만들고, 결국 만주 봉천으로 떠나게 만든다. ‘핏줄과 가문’을 보전해 나가야 할 종손 강모가 매안, 즉 집안과 가문을 버리고 떠난다는 점에서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사건은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이라는 ‘훼손 가능성’에 다시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사건이 더 확장된 의미의 ‘훼손 가능성’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손의 부재라는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다시 맞물린다.<sup>42)</sup> 즉, 상피 사건이라는 ‘훼손 가능성’에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사건이 ‘훼손 가능성’으로 결합하고, 다시 종손의 부재라는 ‘훼손 과정’이 맞물림으로써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서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씨 가문이 ‘훼손 과정’으로 전락해가기 전, ‘훼손 가능성’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건은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오르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앞서 분석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 사건들에 맞물려 야기된 사건이다. 창씨개명, 저수지의 마름, 강모의 부재라는 사건들로 인해 청암부인이 실습 후 의식을 잃게 되고, 얼마 후 그녀의

41) 3권, pp.84-85.

42) ‘종손의 부재’라는 동일한 상태가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에서는 ‘훼손 상태’로, 이후의 서사에서는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다. 그 이유는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에서는 준의가 죽었고 그의 혈육이 없었으므로 종손의 부재가 ‘핏줄과 가문’의 절손을 의미한다면, 이후의 서사에서는 강모가 매안을 벗어났을 뿐이고 그의 아들 철재가 태어났으므로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혼불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사건들은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나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혼불이 떠오르는 사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그것과 결합하고 있으므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의 중심에 혼불이 떠나가는 사건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육신에서 그렇게 혼불이 나가면 바로 사흘 안에, 아니면 오래 가야 석 달 안에 초상이 난다’(3권, 107쪽.)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청암부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암부인은 앞선 서사에서 이씨 가문이 도달한 ‘회복 상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종부로서의 그녀의 신행이 이씨 가문의 ‘회복 가능성’으로, 그녀가 주축이 된 저수지 공사가 ‘회복 과정’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혼불이 떠오르는 사건은 역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이제까지 살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이전의 서사 과정에서 도달한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에 ‘훼손 가능성’이라는 기능이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 ‘훼손 가능성’은 창씨개명, 저수지의 마름, 강모와 강실의 상피, 강모의 만주행,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오름이라는 사건들이 서로 맞물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씨 가문의 ‘뗏줄과 가문’이 또다시 뒤흔들릴 가능성을 제시한다.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작용하면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이 시작된다.<sup>43)</sup> 이제까지 살핀 ‘훼손 가능성’에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회복→훼손’의 구조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씨 가문의 ‘뗏줄과 가문’이 뒤흔들리는 ‘훼손 과

43) 청암부인의 죽음을 ‘훼손 과정’의 시작점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이씨 가문의 ‘회손→회복’ 서사 과정의 중심 인물의 사라짐이라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이 사건부터 『혼불』의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가 부각되는 단절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사판과 한길사판의 차이, 즉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오르는 이야기까지가 먼저 집필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중에 집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은 당골네 백단이와 그녀의 남편인 무부 만동이에 의한 투장 사건과 강실이 거명 굴의 인물인 춘복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투장은 ‘남의 땅이나 남의 산소 명당에 아무도 모르게 유골을 밀어 넣어 밀장하는 것’(5권, 292쪽.)으로 주로 팔천 중 하나인 당골네가 양반의 산소 명당자리를 기억해 두었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 산소의 옆부분을 헐어 자신의 조상 유골을 넣고 다시 흙을 메워 놓는 것이다. 이런 투장이 매안의 당골네 백단이와 그 남편 무부 만동이 청암부인의 무덤에 만동의 아버지인 무부 홍술의 유골을 밀어넣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기라성같이 기둥같이 우뚝우뚝 서 있는 비석들과 이를 보호하여 시립하고 서 있는 호석들의 발치에, 이 조상의 후손이 되어 가문에 들어와 평생토록 종가를 지킨 종부 청암부인의 동그만 무덤이 품에 안긴 듯 누워 있으나. (중략)

대낮보다 더 어두울 것도 없는 달빛 휘영청한 대보름 밤에, 후손의 종부 무덤이 헐리는 것도, 그 무덤 속에 천골 무당 무부의 뼈다귀가 쭈셔 넣어지는 것도, 그리고 다시 그 무덤이 메워지는 것도, 다 한눈에 보면서, 숨소리 하나도 내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달빛이 스민 음각의 그림자만을 묵묵히 머금고 있을 뿐이니.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게끔 살아오신 선조의 음덕은 어디로 가고, 이처럼 무참한 능욕에도 오직 침묵하고 계신다.<sup>44)</sup>

투장 사건은 그 자체로도 ‘상종 못할 천민의 뼈다귀를 서슬 푸른 양반의 조상 유골 위에 걸레같이 쭈셔 넣는 행위’(5권, 294쪽.)이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뺨줄과 가문’을 지켜 내려온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종가의 종부로 평생을 이씨 가문의 ‘뺨줄과 가문 지키기’에 바친 청암부인의

---

44) 5권, pp.333-334.

무덤이 훼손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런 ‘무참한 능욕’에도 ‘핏줄과 가문’을 따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선조의 음덕’이 사라진 듯한 조상들의 침묵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투장 사건이라는 ‘훼손 과정’에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든 사건이 존재한다.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오른 사건과 그 뒤의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사건이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장 사건이 ‘훼손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에 투장 사건이 ‘훼손 과정’으로 결합하여 ‘가능성, 과정’의 기본적인 시퀀스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투장 사건은 며칠 뒤 이씨 가문의 선산지기 박달이가 산소의 훼손을 발각하고 이를 기채에게 알리자 분노한 기채가 그것이 백단기와 만동이의 소행임을 알아내 그들을 덕석말이하야 응징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그러나 범인을 밝혀내고, 그들을 응징한 사건을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이나 ‘회복 과정’이라 볼 수는 없다. ‘이제는 틀렸다. 어머니의 한 세상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다’(8권, 299쪽.)는 기채의 한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종가의 종부로 ‘핏줄과 가문’을 지켜온 청암부인의 삶 자체의 의미가 무화되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백단기와 만동이를 응징한 덕석말이라는 사건은 청암부인의 상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에 ‘상서롭지 못한 일’(5권, 136쪽.), ‘흉(凶)’(5권, 123쪽.)으로 해석된다. 덕석말에 의한 응징이 이씨 가문의 위상에 누가 되는 허물을 의미하면서 투장 사건이라는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기능이 아닌 오히려 상태를 더 전락시키는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투장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에 다시 덕석말이 사건이 ‘훼손 과정’으로 결합하여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암부인의 혼불이 떠오른 사건과 그녀의 임종이라는 사건이 투장 사건이라는 ‘훼손 과정’과 결합하는 것처럼 상피 사건과 강모의 만주행도 강실의 임신이라는 ‘훼손

과정'과 결합한다.

어찌 나를 그렇게 소원하시오?

나도 것처럼 소원하던 이가 있었소.

그 소원이 내 평생에는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리다만.(중략)

그래. 그리움을 버리자.

내가 그를 그리워할 자격을 잃어버리자.

평생에 다시 못 올 그리움, 부질없는 이 그리움을 버리고, 오라버니를 놓아 드리자. 내가 이대도록 애오라지 오라버니 그리워하고 있으면 끝내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리라. 허나 어이하면 이 그리움 버릴 수가 있으리. 나는 정녕 아무런 방도를 모르니, 오직 자격을 잃어버리자. 자격을 잃으면 다시는 기다리지 않겠지.

기다릴 수 없겠지.<sup>45)</sup>

상피 사건과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강모가 만주로 달아나버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남겨진 강실은 평생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를 그리워할 자격을 버리자'는 심정으로 자신을 원하는 거명굴의 인물 춘복이에게 몸을 허락하게 되고, 그의 아이를 갖게 된다. 상피 사건과 강모의 만주행, 그리고 뒤따른 강모의 부재 때문에 강실이 춘복에게 몸을 허락하고, 임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실이 춘복의 아이를 임신하는 사건 역시 상피 사건,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과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실의 임신은 그 자체가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나타낸다. '서릿발 돌는 가문에서 아직 시집도 안 간 규방의 처녀로, 종조모 상중에 아이를 배었다니'(7권, 55쪽.)라는 강실의 어머니 오류골택의 말이나, 임신 사실을 눈치채고 '집안 망칠 일', '집구

---

45) 6권, p.114.

석 쑥대밭될 일’(7권, 63쪽.)이라 강실의 아버지 기응을 추궁하는 그의 형 기표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씨 가문의 위상에 직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복 중의 아이의 아버지가 거명굴에 살고 있는 상놈 춘복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그것이 핏줄의 섞임, 즉 이씨 가문의 핏줄이 상놈의 핏줄과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은 상피 사건과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훼손 가능성’에 ‘훼손 과정’으로 결합하여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이전의 서사 과정에서 도달한 ‘회복 상태’에 또다른 ‘훼손 가능성’이 맞물리고, 여기에 다시 ‘훼손 과정’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브레몽의 서사 모델에서의 ‘가능성, 과정, 결과’라는 기능의 결합에 의한 ‘회복 상태→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sup>46)</sup>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암부인 중심 서사에서의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이 서사 과정에서도 저변에 깔려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전 서사 과정의 의미가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인 반면, 이 서사 과정은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의미를 생산해내는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들인 투장 사건과 강실의 임신에 거명굴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투장 사건은 당골네 백단이와 무부 만동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고, 강실의 임신은 거명굴의 상놈 춘복이가 강실을 범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팔천(八賤)과 상놈이라는 신분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에 투장 사건과 강실의 임신

46) 여기에서 ‘훼손 상태’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 서사 과정을 ‘가능성, 과정, 결과에 의한 기본적인 시퀀스’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의 기능들의 결합은 여러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브레몽은 하나의 기능 뒤에 반드시 다른 기능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며, ‘사건은 예견된 끝까지 진행될 수도 있고, 중도에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C. Bremond, op. cit., pp.387-388, 참조.) 이것은 기능들의 결합을 결과론적으로 보는 프로프와 다른 입장으로 이에 대해 ‘프로프에게선 한 기능이 단수의 후속 기능의 전제가 된다면, 브레몽에게선 한 기능이 복수의 후속 기능의 전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는 글이 있다. (한일섭, 앞의 글, pp.256-260, 참조.)

은 양반인 이씨 가문이 천민과 상민에 의해 뒤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서사 과정의 의미인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란 천민과 상민에 의해 전락해가는 양반 가문, 즉 양반 계급의 몰락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서사 과정의 의미는 봉건적 질서의 붕괴라는 새로운 의미로 확장된다.<sup>47)</sup> 이와 같은 의미는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와 다음 장에서 살필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필 때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 (2) 손부 효원 중심의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 도달 실패’의 구조

이제까지 살핀 바와 같이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구조를 나타낸다. 그런데 그 ‘훼손 과정’ 중 비록 실패로 끝맺기는 하나 일말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삽입되어 있다. 효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에 도달 실패’라는 서사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서사 과정 안에 또다른 서사 과정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은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삽입식 결합’<sup>48)</sup>이라 할 수 있다.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훼손 가능성, 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에 ‘회복 가능성, 회복 과정, 회복 상태 도달 실패’라는 상이한 구조의 또 다른 기본적인 시퀀스가 삽입식 결합을 이루는 복합적인 시퀀스인 것이다.<sup>49)</sup>

47) 『혼불』이 양반계급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없이 기존의 논의에서 강조된 바이다. 이 작품이 일제 침략기라는 역사적 공간 내에서 ‘지배계급의 몰락사와 피지배계층의 의식 변화’를 좇아 ‘변동사회의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장세진의 논의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장세진, 앞의 글, pp.149-155.)

48) 각주 21번, 참조.

49) 이렇게 볼 때, 브레몽의 이론에서 기본적인 시퀀스와 복합적인 시퀀스의 개념과 관계는 분석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탄력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으로 예를 들면, 그 자체가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인 동시에 그 안에 ‘회복 상태 도달 실패’라는 구조를 안고 있는 복합적인 시퀀스인 것이다. 한일섭도 브레몽의 기본적인 시퀀스를 설명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된 스토리 전체를 ‘한 시퀀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엔 그 ‘전체 시퀀스’가 일련의 작은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일섭, 앞의 글, p.260, 참조.)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 중 효원이 이씨 가문의 종부로서 청암부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 즉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극복해 나가려 시도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 즉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하는 모습은 이전 서사 과정에서부터 청암부인과 효원의 동일성이 강조되면서 그 가능성이 예견되었던 것이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실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해,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하리라는 예견이 제시되고,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이 시작되자 그 예견이 실행되어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청암부인과 효원의 동일성 강조, 즉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견은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sup>50)</sup> 체격, 기질 혹은 성격의 공통점 강조 등이 있으나 그것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청암부인의 혼불을 효원이 흡월정(吸月精)하듯 빨아들이는 사건이다.

(할머님 가신 한 생애를, 내 또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정처없이 떠나  
가 버린 그 사람은 언제나 돌아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 하시던 할머님. 그 뼈를 태우시고 이렇게 한 점 푸른  
불꽃으로 떠올라 이승을 하직하시면서……나한테 점화하고 가시는 것을.)

(중략)

50) 『혼불』을 ‘여성 주축의 삼대기’가 특이 사항인 ‘가문체 서사문학’ 또는 ‘가족사 소설’로 보는 논의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효원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할 것이라는 예견이 드러난다는 점은 기존의 논의에서 이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 효원의 삶이 청암부인의 삶을 반복하는 예견 가능한 행로를 확연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견되지 않은 결말을 향해 가는 힘의 응축과 확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황국명의 논의가 있다. (황국명, 앞의 글, p.149-150, 참조.)

효원은 사라지는 불꼬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을 조이며 숨을 죽인다. 마치 흡월정(吸月精)을 하던 때와도 같은 무서운 정성으로 그네는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인다. 한번 들이마신 그 기운이 행여 새어나갈까 하여 그네는 죽은 듯이 고요히 숨을 참는다.

드디어 그네의 온몸에, 실핏줄의 꼬트머리에까지 청암부인의 넋이 파도 물마루보다 아찔하고 아득한 기운으로 차오르며, 그네는 숨이 가빠져, 그만 동실 허공으로 떠오르고 만다.

이제 그네는 청암부인을 낳을 것이다.<sup>51)</sup>

효원은 자신이 청암부인의 생애를 반복할 것이라 예견하고,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임으로써 ‘내 홀로 내 뼈를 일으키리라’는 청암부인의 각오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분석했듯이 청암부인의 생애란 종부와 종손의 부재라는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를 종가의 종부로서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을 거쳐 ‘회복 상태’로 이끈 ‘핏줄과 가문 지키기’이다. 그러므로 강모의 만주행과 청암부인의 임종으로 그와 동일한 종손과 종부의 부재라는 상황에 처한 효원이 청암부인과 동일한 위치인 종가의 종부로서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이는 사건은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예견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sup>52)</sup>

그리고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이 시작되자 그 예견은 실행에 옮겨진다. 효원을 주축으로 한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가 서사 과정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과정은 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 중 강실의 임신에 결합하여 그것을 극복하려 시도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그 서사 과정을 이룬다. 그리고 그 ‘회복 가능성’은 효원이 강

---

51) 3권, pp.111-112.

52) 예견, 즉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원이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이는 사건 자체를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의 ‘가능성’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을 결합시키는 ‘가능성’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모와 강실의 상피, 강실의 임신을 알고는 그 사실이 밝혀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사건에서 나타난다.

강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사병을 앓고 있는 데다 춘복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강실은 종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깔담살이가 의원을 모시러 간 사이에 강실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효원은 사람들이 많은 종가에서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소문이 생겨날 것이라 판단하여 강실을 종가에서 그녀의 집으로 보내 강실의 임신 사실이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뿐만 아니라 안서방네에게 강실을 지켜보라고 하여 강실이 ‘청호’에 몸을 던져 자결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효원이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강실의 임신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과 강실의 자살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나 종시매 강실이는 철재의 당고모로서, 아버지의 사촌누이. 무슨 일을 당하여, 물에 빠져 죽거나, 목을 매어 자결하면, 이 좁은 매안골 향아리 안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천지가 좁다 하며 독한 소문 흉악하게, 휘쓸고 다닐 터이니.

저 아이 아버지가 상피붙어, 제 종매를 죽게 했다아.

죄없는 어린 아들, 창창한 앞날에 손가락질 끼었어서, 얼굴도 못 들게 할 것이 분명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면, 그 가문의 명예를 건지기 어려운 법.

철재를 살리려면 강실을 살려야 한다.

집안을 보호해야 한다.

내 심중 같은 것은, 나 혼자 묶어야 한다.<sup>53)</sup>

그것은 곧 내 가문이 찢기는 것이요, 가문이 찢기면 내 아들, 우리 철재가 찢기는 것이다. 내 가슴이 찢기는 대신, 일평생 함봉하고 나 홀로

---

53) 6권, pp.306-307.

견디는 대신, 철재를 이 몸으로 막아 주어야 한다.

나를 찢고, 철재를 지켜야 한다.

심정만 같았으면, 콩심이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강실이라도 강모도 공중으로 쳐들어서 맞잡아 최악, 다 찢어버리고 싶었다. 가루가 되어 허공에 잔해를 뿌릴 때까지, 종이 찢듯 그림자까지.

그러다가 춘복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네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능멸하기 전에, 왈각,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강실이 아이를 뺐다 하니.

그 두려움은 실체가 되어 효원을 덮쳐 누른다.<sup>54)</sup>

효원은 자신의 남편인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을 계집종 콩심이한테 전해 듣고 그들을 증오한다. 그러나 강실이 춘복에게 겁탈을 당해 춘복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상피 사건과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이 ‘독한 소문’으로 퍼져 나가는 일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감정을 버리는 일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것이 자신의 아들 철재를 살리고, 집안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씨 가문의 명예와 그 종손으로서의 철재를 위해 자신의 가슴이 찢기더라도 상피 사건과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효원이 강실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과 강실의 자결을 막는 사건은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를 의미한다.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과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은 서로 맞물려 있는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이고,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효원이 소문과 강실의 자결을 막는 사건은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의 파장을 저지하여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의 진행과 확장을 막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

---

54) 7권, p.66.

에 결합하는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sup>55)</sup>

여기에 다시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이 맞물리는데, 그것은 효원이 강실을 대실 자신의 친정 근처의 안행사라는 암자로 피신시키는 사건이다. 여기에서도 가문과 종손 철재를 위해 강실의 피신을 계획하여 실행시키는 효원의 모습이 나타난다. 강실의 피신은 강실을 숨김으로써 이씨 가문의 위상에 누가 될 임신에 대한 소문을 막아낸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의 진행과 확장을 저지하고, 그 극복을 꾀하는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이 사건의 ‘회복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은 강실의 피신이 그녀의 복 중의 아이가 매안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강실의 복 중의 아이는 거명굴 상놈인 춘복과 피툼의 쉼임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그 자체가 이씨 가문의 ‘피툼과 가문의 흔들림’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춘복의 아이가 매안을 벗어나는 것은 ‘피툼과 가문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원인, 더 나아가 ‘피툼과 가문의 몰락’을 나타내게 될 원인 중 하나<sup>56)</sup>가 매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효원에 의한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은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맺고 만다. 효원의 친정인 대실 근처 안행사라는 암자로 안내해줄 황아장수를 따라가던 강실이 거명굴 인물 중 하나인 옹구네에 의해 납치당함으로써 강실의 피신이라는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해 강실의 사라짐이라는 이 사건의 또다른 의미에 의해 새로운 ‘훼손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에 의해 효원을 주축으로 한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이 ‘회복 상태

---

55) 효원에 의한 소문 막기와 강실의 자결 저지라는 사건이 이씨 가문이라는 한 관점 안에서 ‘훼손 과정’과 ‘회복 가능성’이라는 상이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결합은 브레몽의 서사 문법에서 ‘=’의 양상을 나타낸다.

56) 강실의 복 중의 아이가 ‘피툼의 쉼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아이의 탄생은 이씨 가문의 ‘피툼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훼손 과정’이 마무리되어 ‘피툼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훼손 상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달 실패'로 끝맺어질 뿐 아니라, 강실의 사라짐이라는 또다른 의미로 이 사건이 새로운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여 이씨 가문을 이전보다 더 전락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효원 중심의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에 결합하여 '회복 상태 도달 실패'라는 기능과 이전보다 더 진행되고 확장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sup>57)</sup>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은 이씨 가문의 명예의 실추를 막고,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의 원인 중 하나를 없애는 강실의 피신이라는 사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에 결합하여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기능한다. 중요한 점은 이 '회복 상태 도달 실패'가 곧장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이라는 기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실의 아이는 그 자체로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실이 납치당해 매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가의 앞마당이라 할 거명굴의 옹구네의 집에 기거하고 있으므로 그 아이의 존재가 여전히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은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 강실의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보다 앞서 이루어졌던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결합하여 이전보다 더 전락한 이씨 가문의 모습을 그려낸다. '핏줄과 가문'을 이어나가야 할 가문의 다음 세대인 강모와 사촌형 강태가 매안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남아 있던 강실마저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들은 전생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니만. 큰택에나 우리나라 자네나, 삼 동서 나란히 이씨 문중에 시집와서 무어 그리 큰 호강도 채 못해 본 것 같건만, 어찌 그리

---

57) 하나의 사건, 즉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한 관점, 즉 이씨 가문의 관점 안에서 '회복 과정 실패'와 '훼손 과정'이라는 상이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 의한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거짓말처럼 똑같이도 앞앞이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모두 다 집을 나가,  
이 지경을 당한단 말인가.(하략)”<sup>58)</sup>

강모, 강태, 강실은 각각 기채, 기표, 기웅 삼형제의 하나뿐인 아들,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 종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이들이 모두 종적이 묘연하다는 것은 이씨 가문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는 ‘훼손 과정’, 즉 이씨 가문의 핏줄을 이어나가고 가문을 지킬 세대가 사라진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기능한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이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 종손의 부재라는 사건과 맞물려 더 진행되고, 확장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처럼 ‘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 도달 실패’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로 전개되며, 이것이 이전 서사 과정의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으로 시작되어 그 실패로 다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 결합하는 ‘삼입’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 중 한 단계인 ‘훼손 과정’에 효원 중심의 ‘회복 가능성, 회복 과정, 회복 상태 도달 실패’의 3단계의 서사 과정이 글자 그대로 삼입되어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전략한 상태의 이씨 가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59)</sup>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은 청암부인의 생애를 반복하는 효원의 모습이 예견되고, 청암부인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것이 실행되어 ‘핏줄과 가문 지키기’를 나타내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맞물리는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맺으므로 ‘핏줄

58) 10권, p.321.

59) 브레몽의 서사모델에서의 또다른 결합 양상인 ‘연쇄’와 비교해보면, ‘연쇄’는 두 서사 과정이 끝과 끝을 맞추는 결합이고, ‘삼입’은 서사 과정의 한 단계인 ‘과정’에 ‘가능성, 과정, 결과’ 3단계의 서사 과정이 결합하는 것이다. 즉, ‘연쇄’가 한 서사 과정의 ‘가능성’과 다른 서사 과정의 ‘결과’가 맞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삼입’은 한 서사 과정의 ‘과정’에 다른 서사 과정의 ‘가능성, 결과’ 모두가 맞물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참조.)

과 가문 지키기 실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구조

『혼불』의 초반 서사는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그것이 작품 전체의 이야기 갈래 중 하나를 이룬다.<sup>60)</sup> 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은 종가의 노비인 우례, 거명굴의 상민인 춘복과 옹구네, 거명굴의 천민인 백단이와 만동이이다. 그런데 이들이 주도하거나 경험하는 사건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행위를 두 개의 관점과 혼동해선 안된다’<sup>61)</sup>고 강조하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보았을 때,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이 주도하거나 경험하는 사건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서 살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를 이끄는 사건들을 관점을 바꿔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으로 파악하면, 그것이 인물들을 ‘훼손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을 거쳐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0) 이렇게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이미 거명굴이 작품의 배경 중 하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암부인 임종 직후 ‘거명굴 근심바우’(3권, 8장)라 장의 제목을 따로 하여 지형, 이름 유래, 인물들 등을 좀더 깊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가의 노비의 경우도 청암부인의 임종 후 ‘귀·천’(4권, 1장)이라는 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서사의 전환, 즉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청암부인의 임종 전과 후의 서사의 단절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61) 토도로프가 브레몽의 서사 이론을 설명한 말로 기능들의 결합에서의 ‘=’과 ‘vs.’의 차이, 즉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관점에서 동시에 두가지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하나의 사건이 관점에 따라 다른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토도로프, 김치수 역, 『이야기체의 변형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p.27.)

다시 말해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서사 과정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관점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각각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 ‘훼손 가능성’, ‘훼손 과정’에 맞물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과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은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연합’<sup>62)</sup>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앞서 살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끄는 사건들을 종가의 노비와 거명굴 인물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두 서사 과정, 즉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의 ‘연합’의 결합 양상을 밝혀낼 것이다.

#### 1)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훼손 상태’와 그 의미

구체적인 서사 과정의 분석에 앞서 이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훼손 상태’와 그 의미를 분석해내야 한다. 그 이유는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뺨질과 가문’이라는 서사의 핵심을 이씨 가문의 ‘훼손 상태’에서부터 분석해냈듯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끄는 서사의 핵심을 그로부터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훼손 상태’는 노비, 상민, 천민이라는 인물들의 신분으로부터 비롯된다.

“양반이 머 지가 공덕이 있어서 된 거이간디요? 부모 잘 만나고 조상 잘 둔 덕에 거저 양반이 된 거이제. 이런 놈의 신세는 부모가 있으니까, 조상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지마는, 부모·조상 싹 썰어서 빼불고,

---

62) 각주 21번, 참조.

우리 당대끼리만 저랑 나랑 한판 붙으면 못해 볼 거 머 있어? 그께잇 거.” (중략)

“상놈 신세 나 하나로도 여한 없으게, 아재 나보고 장개가라, 자식 낳아라, 그런 말썸 허지도 마씨요. 지집 없이도 한 평생 잘 살랑게요. 보나 마나 뻥허제. 나 같은 상놈에 부모없는 떠돌이를 사우로 맞는 집구석은 또 오죽할 거이며, 그런 집의 딸년을 각시라고 맞아서 자식을 나면, 그놈이 커서는 내 속 상허는 이런 시상을 또 살 거인디, 무신 웬수로 신세 쳇 바꾸를 돈다요……?”

춘복은 노상 그렇게 말했다.<sup>63)</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인 춘복의 ‘훼손 상태’는 고아인 데다가 ‘상놈’이라는 그의 신분 때문이다. ‘이놈 저놈 오고 감서 아무나 밟고 땡기고, 내키는 대로 집어 들어 팔매질을 허드라도 말도 못허는’(2권, 290쪽.) 고살의 돌맹이 같은 ‘상놈 신세’라는 그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천한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 신세를 쳇바퀴 돌 듯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춘복의 ‘훼손 상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세와는 다른 고귀한 신분의 양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춘복이라는 인물이다.<sup>64)</sup>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반은 ‘부모 잘 만나고 조상 잘 둔 덕’에 양반이라는 춘복의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의 원인을 ‘부모와 조상’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고귀한 신분의 양반과 달리 상놈이라는 천한 신분이고, 그것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부모와 조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한 신분과 그것의 대물림이라는 춘복의 ‘훼손 상태’는 이 서사 과정의 또다른 인물들인 당골네 백단이와 그녀의 남편인 무부 만동이의 경우에도 그들이 팔천 중 하

63) 2권, pp.288-289.

64) 춘복이라는 인물에 대해 ‘양반집 규수인 강실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상놈의 신분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욕망은 상민이 체험하는 박탈과 소외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이윤영의 논의도 상놈이라는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을 춘복의 ‘훼손 상태’로 지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윤영, 앞의 글, pp.454-455.)

나인 무당과 무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만동의 아버지 무부 홍술로부터 이들의 ‘훼손 상태’의 원인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타고나제, 맘대로 골라 살 수 있다면 어뜰 쎄 빠진 놈이 무당 서방을 허졌냐? 지집 덕에 먹고 사는 지등서방 한가지로.”

“타고나?”

“그리어. 조상 뺨다구 모양을 따러서, 어뜰 놈은 갓 씨고 도포 입는 양반으로도 나고, 어뜰 놈은 밤잠 못 자고 젓대 부는 쟈이로도 나는 거 아냐. 그것을 가문이라고 허능 거이어, 가문. 알것냐?”

“그러면 양반은 양반만 낳고, 당골은 당골만 낳는당가?”

“호랭이는 호랭이만 낳고, 구렁이는 구렁이만 낳디끼.”

“낮바닥은 사람마동 다 똑같은디잉, 뺨다구가 머이 달롱가아?”

“궁게 말이다. 우리는 잘 몰라도 머이 달려도 달르기는 달롱잡제. 껌데 기 활랑 뱃게 보든 안했잉게 그 속은 알 수가 없지마는.”<sup>65)</sup>

무당과 무부는 백정과 함께 조선 시대 팔천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다. 뿐만 아니라 ‘무당은 절대로 일반 사람들과는 혼인할 수 없다고, 법으로 엄하게 금지’(5권, 282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골네 집안끼리 무계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다시 천한 신분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용문의 내용인 어린 만동과 홍술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홍술은 이런 무당과 무부의 ‘훼손 상태’, 즉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천한 신분이 대물림되는 것을 타고나는 ‘조상 뺨다구 모양’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가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타고나는 ‘조상 뺨다구 모양’이란 대대손손 이어지는 ‘핏줄’의 다른 말이고, 그에 따라 대물림되는 신분에 의해 ‘가문’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양반과 달리 천한 신분이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훼손 상태’인 이유는 양반과 다른 ‘핏줄과 가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이씨 가문

---

65) 5권, p.281.

중심의 서사에서 서사의 핵심을 이룬 ‘핏줄과 가문’이 ‘훼손 상태’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그것의 의미는 좀더 확장된다. 이 서사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의 ‘훼손 상태’가 양반 대 상민·천민이라는 구분에 따라 양반을 대립항으로 놓고 형성되는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씨 가문의 서사에서의 ‘핏줄과 가문’이 고귀한 양반의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 서사에서의 그것은 천한 신분을 가진 이들의 ‘핏줄과 가문’을 의미한다.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분석하겠지만, 이 서사 과정의 인물들은 이런 ‘훼손 상태’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여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핏줄과 가문’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었듯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도 확장된 의미의 ‘핏줄과 가문’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의 서사적 핵심을 ‘핏줄과 가문’이라 한다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에서의 그것은 ‘핏줄과 신분’이라 할 수 있다.

‘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 핵심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은 종가의 노비인 우례의 ‘훼손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우례는 종가의 큰집, 즉 기채가 기거하는 집의 종비로 아직 혼인도 하기 전에 기채의 아우 기표에게 겁간을 당하고 기표의 씨를 받은 아들 봉출이를 낳는다. 그런데 조선 시대의 종모법, 즉 아이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하는 법 때문에 봉출이는 양반인 기표의 씨를 받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열다섯살이 되도록 종노로 살아온다. 우례의 ‘훼손 상태’는 바로 이처럼 봉출이가 양반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노비일 수밖에 없는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에 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우례는 어금니를 물었다.

너는 어찌든지, 꼭.

하고는 그 다음 말을 어금니로 깊이 사려 문 것이었다.

그것은 한두 번 베틀은 말이 아니었고, 한두 해 베틀은 말도 아니었다.<sup>66)</sup>

“봉출아, 너는 어찌든지 꼭, 니 성을 찾아라. 내가 나중에 죽고 없드라도. 너는 추(秋)가가 아니고 이씨다. 잊어부리지 말그라. 너는 이씨여. 추봉출이 아니라 이봉출이여, 이(李). 어찌든지 꼭, 너는.”

우레는 봉출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주문처럼 말했다.

그리고 청암부인을 남모르게 가리키며 말했다.

“잘 바 두어라. 네 할머니님 되시는 어른이시니라.”<sup>67)</sup>

우레는 노비라는 천한 신분이 아들 봉출에게 대물림되어 그가 아버지인 기표의 성이씨가 아닌 추씨로 살아가고 있는 ‘훼손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그래도 그 자식의 피 반절은 양반이고, 성씨야 본래 아버지 따르능 것 아니요’(6권, 159쪽.)라는 그녀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절반은 매안 이씨 양반의 핏줄인 봉출의 성씨를 찾아주기를 소망하고, ‘너는 어찌든지 꼭, 니 성을 찾아라’라고 주문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또다른 인물인 옹구네는 열녀비를 보고 ‘너도 참말로 불쌍헌 헛세상을 살다가 갔다’고 비웃으며 자신 역시 과부지만 ‘나느은 살란다야’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토지』의 임이네와 비교될만큼 ‘생명력 넘치는 건강성’<sup>68)</sup>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옹구네도 팔천들이 사는 거명굴에 기거하고 있는 상민이기에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 역시 거명굴과 이씨종가가 있는 원땀 사이의 도랑물을 ‘서로의 신분을 금 긋는 경계’(1권, 281쪽.)로 느끼

---

66) 4권, p.86.

67) 4권, pp.87-88.

68) 백지연, 앞의 글, p.203.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생명력 때문에 불분명하기는 하나 양반을 대립항으로 설정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에 옹구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양반 대 상민과 천민이라는 대립항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이씨 가문의 인물들 중심의 서사에서의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이 서사 과정에서 ‘핏줄과 신분’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sup>69)</sup>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훼손 상태’가 이씨 가문의 ‘회복 상태’와 상응한다는 점이다. 앞서 분석했듯이 『혼불』의 실질적인 서사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은 ‘핏줄과 가문’의 ‘회복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관점에서 보면 작품의 시작점은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 ‘핏줄과 가문의 회복 상태’가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관점에서는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인 것이다. 동일한 상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각각 상이한 의미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두 서사 과정이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연합’이라는 결합의 양상으로 맞물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을 분석하면, 이 결합의 양상이 좀더 분명해질 것이다.

## 2)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훼손→회복’의 구조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인물들은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여 ‘회복 가능성’을 거쳐

---

69)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만을 살펴보았는데, 종가가 있는 원땀을 대립항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거명굴의 인물들 모두가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할 수 있다. 『혼불』의 등장인물 중에서 봉건적 구속과 신분의 억압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거의 없다’고 보는 이윤영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윤영, 앞의 글, p.455.)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건들에 의해 ‘훼손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을 기본적인 시퀀스로 나타낸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들을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이끄는 사건들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각각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 사건들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사건이 이씨 가문의 관점과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관점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훼손 과정’과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복합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사건들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관점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결합의 양상을 밝혀내보려 한다.

이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 중 가장 먼저 ‘훼손 상태’를 극복할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사건을 접하는 인물은 춘복이다.

“그러면? 그러머언. 원땜에 강실이가 자개 차지 될 중 알엇당가? 거그는 대체나 더 좋겠네? 양반 중에 양반잉게. (중략) 거그다가 몸땜이도 헌 것 되야 부렸겠다. 온전한 시집 못 갈 것은 불 속을 디리다보디끼 흰허고. 나이는 먹고, 오란 디는 없고, 잘 되얏네. 업어오지 그리여? 오메불망 정든 님은 기생첩을 옆에 찌고 전주로 도망가 부렸담서, 더 잘 되얏네 그리여.”

순간 춘복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빛났다.<sup>70)</sup>

춘복이는 자기도 모르케 몸을 떠다.

무엇인가 사무치며 치밀어 올라 목이 뜨겁다. 그것은 희열이었다.

(내가 이날을 이때끄장 지달렸능게비다. (중략) 나는 죽어도 상놈 자식은 낳기 싫었능게. 이 육시랄 노무 상놈 꺼죽 훨훨 벗어 내부리고, 사램이 사는 것맹이로 살고 자꿘다. 무지헌 곶도 하늘님 아들을 만나서 인연

70) 3권, p.20.

을 지으면 곰껍닥을 벗고 사렘이 되는데, 나도 언지든지 이 껍닥을 벗게  
내고 사렘이 되게 해 줄 여자를 만날라고, 그럴라고 지금꼬장 살아왔  
다…….) (중략)

(작은아씨. 내 자식 하나 낳아 주시요. 나는 작은아씨한테 양반 자식  
하나 얻고, 작은아씨는 나한테 상놈 자식 하나 얻으시요.)<sup>71)</sup>

춘복의 ‘훼손 상태’는 자신이 ‘상놈’이고, 그 신분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런 ‘훼손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강실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춘복은 강실을 통해 ‘상놈 자식’이  
아닌 ‘양반 자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상놈 꺼죽’을 벗고 ‘사렘’이 될 수 있  
다고 생각하고 ‘희열’을 느낀다. 강실에게서 자식을 얻어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  
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고 ‘두름박을 타고 승천’(3권, 25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춘복이 강실을 탐하게 되는 사건은 ‘훼손 상태’에 맞물려 춘복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강실을 탐하는 춘복의 ‘회복 가능성’에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춘복이 강실을 원하게 되는 사건 이전에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으로 상피 사건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춘복이 강실이가 상피  
사건으로 ‘헛 것’이 되어버렸고, 소문 때문에 ‘온전한 시집’을 가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놈 자식’ 낳기 싫으면 강실을 데려오라는 옹구네의 비꼬는 말을 듣고는 ‘소스라  
치게 놀라운 발견’(3권, 21쪽.)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자신의 ‘훼손 상태’를 극복  
하는 ‘회복 가능성’으로 강실을 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실과 강모의 상피  
사건 역시 춘복의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춘복의 ‘회복 가능성’  
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강모와 강실의 상피 사건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뺏줄과 가문의 흔들  
림’을 예고하는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 사건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관점을 달

---

71) 3권, pp.24-25.

리한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그 중에서도 춘복이의 서사 과정에서는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피 사건이라는 동일한 사건의 상이한 기능으로 인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춘복의 서사 과정이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72)</sup>

춘복의 ‘회복 과정’에서도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 중 ‘훼손 과정’과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낼 수 있다. 강실을 탐하는 ‘회복 가능성’에 머물고 있던 춘복은 공배에게 ‘변동천하’라는 말을 듣고는 ‘인자는 더 안 지달랴란다’(4권, 215쪽.)하고 결심을 하면서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sup>73)</sup> 다시 말해 ‘회복 가능성’에 ‘회복 과정’이 결합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춘복을 돕기로 한 옹구네가 강실과 강모의 상피 사건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일, 춘복이 정월 대보름달을 보고 강실이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고 그 달을 흡월정하는 일 등이 있으나 춘복의 ‘회복 과정’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은 정월 대보름 밤 춘복이 강실을 범하는 사건이다.

온몸을 질박하게 채우고 있던 울혈이 멎든 덩어리째 울컥울컥 쏟아져 버리던 순간, 춘복이는 핏줄마다 고이고 막힌 설움까지 함께 토하며, 울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윗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질기게도 꼬여온 핏줄의 동아줄이 툭, 소리를 내며 장쾌하게 끊어져 풀리는 것을 그는 느끼었다. 그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켜켜이 버캐 끼어 바위보다 무거워진 누대(累代) 천골(賤骨)을 뼈째로 토해 내며, 그는 가벼운 몸으로 떠올랐던 것이다.<sup>74)</sup>

72)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의 양상의 결합이란 상피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과 거명굴의 인물 춘복의 ‘회복 가능성’이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vs.’의 결합, 즉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하여 서로 다른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73)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끄는 다른 인물들이 청암부인의 임종 후 작품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과는 달리 춘복은 작품의 초반 서사, 즉 청암부인 임종 전부터 ‘훼손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그 역시 청암부인의 임종 후에야 강실을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다는 점에서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가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강실을 원하던 춘복은 정월 대보름 밤 강실을 범하여 그 소원을 풀게 된다. 춘복이 강실을 범한 사건은 춘복에게 ‘핏줄마다 고이고 막힌 설움’을 토하고, 대대손손 ‘질기게 꼬여온 핏줄의 동아줄’이 끊어져 풀려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는 ‘누대 천골’을 토해내고 가벼운 몸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춘복을 ‘훼손 상태’를 극복한 ‘회복 상태’로 나아가게 하진 못하고, ‘회복 과정’의 기능을 하는 것에 머문다. 춘복은 강실을 단순한 정욕 때문에 원한 것이 아니다. 강실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그녀에게서 ‘양반 자식’을 얻어냄으로써 양반인 이씨 가문의 ‘가지 끝에 접붙여 묵은 몸 껍질을 깨뜨리고 새 잎사귀로’(6권, 181쪽.) 태어나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강실을 원했다. 그러므로 강실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가 극복되어 ‘회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순 없는 것이다. 춘복이 강실을 범하고 난 후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나, 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니’라는 심정으로 허탈함과 참담함을 느끼고, ‘작은 아씨가 참말로 내 사람 되야, 내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일이 내 앞에 당하는 날이 오까’하여 불안함을 느끼는 일이 이를 입증한다.<sup>75)</sup>

그렇기 때문에 춘복은 강실이 옹구네에게 납치당해 거멍굴 그녀의 집에 있다는 사실과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배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세상은 무너져도 좋았다’(8권, 39쪽.)라고 할만큼 기뻐하고, 강실이가 떠나기 위해 기차표를 구해달라고 했다는 옹

74) 6권, pp.179-180.

75) 기존의 논의에서 춘복이 강실을 범하고 난 후 느끼는 참담함 등은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심정적 거리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것, ‘서사 잠재력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것 등으로 해석되었다. 본고는 춘복이 원래부터 자신의 ‘훼손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강실을 원했다는 점에서, 강실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춘복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이것이 춘복의 강실 겁간이라는 사건을 ‘회복 과정’에 머물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백지연, 앞의 글, pp.202-203. 황국명, 앞의 글, p.154.)

구네의 말을 전해듣고는 ‘내 자식은 어찌고, 마음대로 간다능 거이요’(9권, 223쪽.)라 하면서 강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강실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고, 자신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단지 몸을 가진 겹간에서 더 나아가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 극복에 좀더 다가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춘복의 강실 겹간 뿐 아니라 강실의 임신과 납치 역시 춘복의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춘복의 강실 겹간이라는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고, 여기에 강실의 임신과 납치라는 사건이 더 진행되고 확장된 ‘회복 과정’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한 상피 사건, 춘복의 강실 탐함이라는 사건에 맞물린 춘복의 ‘회복 과정’이므로 춘복의 서사 과정이 ‘가능성, 과정’이라는 기능들에 의한 기본적인 시퀀스임을 나타낸다.

강실이 춘복에 의해 겹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나 강실이 매안을 떠나지 못하고 납치되어 거멍굴에 머물게 되는 사건은 모두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춘복의 서사 과정에서는 춘복을 ‘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적 핵심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로부터 이끌어내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춘복의 ‘회복 과정’이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연합’의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옹구네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이다. 옹구네가 직접적으로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인물이 아닌 데도 춘복을 도와 상피 사건의 소문을 퍼뜨리고, 강실을 납치하는 등 종가와 거멍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옹구네는 자신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내연의 관계인 춘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춘복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인물이다.<sup>76)</sup>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사

---

76) 옹구네라는 인물에 대해 ‘소설 곳곳에 나타나는 옹구네의 반사회적 심리와 행동은 허물어져가는

건들을 그녀 자신의 '벗출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해석할 순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옹구네가 주도하는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브레몽은 '훼손-회복'의 서사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그 자신의 서사 과정에서의 주인공이라 언급하고, 그 서사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인물들은 주인공인 인물을 돕는 동맹자나 그에 반하는 적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sup>77)</sup> 다시 말해 한 인물이 '훼손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서사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인물들은 그 인물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동맹자이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적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sup>78)</sup> 그리고 그 서사 과정의 주인공인 인물과 동맹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의 관계는 동료, 채무자, 채권자 중 하나이다.<sup>79)</sup> 즉, 현재의 이익을 주고받는 동료이거나 서사 과정의 주인공이 준 과거의 도움을 갚는 채무자, 또는 장래의 이익을 바라고 주인공을 돕는 채권자 중 하나로 동맹자가 처신한다는 것이다.

이런 브레몽의 서사 이론으로 춘복의 서사 과정을 볼 때, 옹구네는 춘복과 채권자로서 관계를 맺는 동맹자이다. 다시 말해 춘복의 서사 과정에서 장래의 이익을 바라고 춘복의 '회복 과정'을 돕는 동맹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이익이란 춘복에 대한 집착에서 야기된 자신의 서러움과 원통함을 강실에게 양갓음하는 것이다.

기왕에 내가 빠지고도 어차피 이뤄질 일이라면, 채라리 한쪽 귀영탱이

---

양반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작품 전체적으로 과부의 한이라는 개인사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장세진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옹구네의 춘복에 대한 집착이 그녀로 하여금 '결다리 아낙의 서러움'(3권, 238쪽.) 등의 '과부의 한'을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장세진, 앞의 글, p.155.)

77) C. Bremond, op., cit., pp.393-395.

78) 이렇게 볼 때,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 특히 강실을 납치하는 옹구네는 이씨 가문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자라 할 수 있다.

79) C. Bremond. op., cit., p.385.

거들어 주고 성사가 된 담에는 한평상 꼴리 주장하는 거이 낫제. 아면.  
성사가 안되야도 나한테는 나쁠 일 없고.

거기까지 생각하던 옹구네는 미묘하게 흥분이 되었다.

아까, 인제 여기 오지 말란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철렁하고 캄캄하던 심  
정에, 곁다리 아낙의 설움, 제 신세의 처량함, 그리고 달려들어 와드득 쥐  
어뜯어 놓고 싶은 분함, 원통함들을, 춘복이 대신 강실이한테, 짓이기는  
것으로 갚아 주고 싶은 야릇한 충동에 그네는 몸이 떨렸다. (중략)

어디, 행세허는 양반의 아리따운 작은 아씨, 어떤 행세를 험서 이 방으  
로 들오는지 나 그것 좀 보고 자프다. 그 꼴 내가 불라고도 기어이 이일  
에 내가 상관을 좀 해야 쓰겠다. 아이고, 양반? 아나, 깨소꿈이다. 이방으  
로 니가 들오기만 해 바라. 들오기만.<sup>80)</sup>

옹구네는 자신과 춘복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이면서도 자신은 아이가 있는 과  
부이고 춘복은 아직 혼인을 안 한 떠꺼머리 총각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몇몇할 수  
없고, 내심 춘복이 같이 살자고 하기를 바라지만 ‘상놈 자식’은 낳기 싫다면서 자신의  
바람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에서 ‘곁다리 아낙의 설움’을 느낀다. 거기에 더  
해 춘복이 강실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나마 지속되었던 관계가 끝  
날 위기에 처한다. 이런 상황에서 옹구네는 춘복이 강실을 차지하려는 일을 도와주  
고, 이후에 그 일이 성사되면 춘복에 대한 집착으로 그녀가 받았던 서러움과 원통함  
들을 춘복이 대신 강실에게 양갓음하리라 결정한다. 그리고는 춘복에게 일이 성사되  
면 자신에게 ‘큰마느래 대접’(4권, 246쪽.)을 해야 한다고 다짐을 받아낸다. 춘복이 ‘혜  
손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대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큰마느  
래 대접’을 받고, ‘큰마느래 노릇 툇툇히 함서, 이 원통하고 설운 분, 곁다리 아낙의  
신세 무안하고 처량했던 것’을 강실에게 모질게 갚기를 바라는 채권자로서의 동맹자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80) 4권, pp.238-239.

이처럼 옹구네가 춘복의 서사 과정에서 춘복을 도와 미래의 이익을 바라는 채권자로서의 동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 자신의 ‘훼손 상태’ 극복이 아닐지라도 그녀가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사건들 역시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옹구네가 춘복의 동맹자로서 춘복을 ‘회복 상태’로 이끌기 위해 취하는 행동 중 하나는 우례를 충동질함으로써 우례의 ‘훼손 상태’를 이용하여 강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옹구네의 충동질은 그것이 우례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바꿔 말하면, 옹구네가 우례를 이용하기 위해 그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종가의 노비인 우례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sup>81)</sup>

“시상이 꼭 그렇게 억울한 것만은 아닝게 우례도 인자,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은 때가 올 거이네. (중략) 봉출이가 앞으로는 갠찰을 거이네. 시방은 추가 달고 종노릇 허지마는 아 누구 씨여, 자가? 수천샌님도 알고 있제. 그런디 그 집이 시방 어뜨케 되야 있능가이? 새터서방님이 외아들 독잔디 대실서방님이랑 같이 만주로 가서 안 오시잖여? 그게 벌써 언제 짝이야기여? (중략) 수천 샌님이 말허자면 자식을 굶게 되었다 그 말이여, 내 말은.”<sup>82)</sup>

“아이고, 무단히 언감생심 맞아 죽을 궁리허고 있다가, 새터서방님 덜

---

81) 옹구네는 우례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 제시뿐만 아니라 부적을 갖다 주는 등 우례의 서사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다. 춘복의 서사 과정의 경우만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옹구네가 우례를 돕고 있고, ‘봉출이란 놈 붙들어 낚잉게 수천샌님 아들로만 되면 그 노릇 헐 때, 우례도 나 몰른다고 았것지맹’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옹구네는 우례의 서사 과정에서도 채권자로서의 동맹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 Bremond, op., cit., p.385.)

82) 6권, pp.161-162.

꼭 돌아오세 불면 어쩔 거예요? 헛심만 팽기제.”

“그렇게 못 오게 해알 거 아니라고? 아조 못 오게.”

“못 오게요?”

우레의 두눈이 옹구네가 보아도 놀랄만큼 벌어졌다.<sup>83)</sup>

우레는 기표의 씨를 받은 아들 봉출이가 양반 이씨가 아닌 종노 추씨로 살아가고 있는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런데 옹구네는 머지않아 봉출이가 ‘수천선님’, 즉 기표의 아들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기표의 외아들 독자인 ‘새터서방님’이 ‘대실서방님’과 함께 만주로 떠나버렸기에 ‘자식을 굶게’ 된 기표가 자신의 씨를 받은 봉출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봉출이가 기표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우레가 ‘훼손 상태’를 극복하고 ‘회복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레가 ‘회복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새터서방님과 대실서방님’, 즉 강태와 강모가 만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강태와 강모의 만주행이라는 사건이 우레의 ‘훼손 상태’에 맞물려 그녀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봉출이가 이씨 가문의 아들로 인정받는 일이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지려면 강태가 다시 매안으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우레가 ‘회복 상태’로 나아가려면 강태가 ‘아조 못 오게’ 되는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옹구네는 우레에게 상피 사건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야 한다고 말한다.(6권, 166-167쪽.) 그 소문으로 매안이 시끄러워지면 강모가 돌아오지 않을테고, 강모 없이 강태만 매안으로 돌아올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레도 강태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부적을 옹구네에게 받아 강태의 베게에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볼 때, 상피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일이나 부적을 넣으려는 시도는 우레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83) 6권, p.163.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레의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은 강실이 옹구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강모와 강태의 부재에 맞물려 이씨 가문을 지킬 다음 세대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삼형제으 세 집이 다 몰락이 비어 부렸잖이여.

요런 수도 있으니까……. 시킨 것맹이로.

옹구네 말이 맞을랑게비여.

우리 봉출이, 우리 아들, 내 자식, 금쪽 같은 이씨 자식. 이 가문의 단 하나 금싸래기 씨앗으로 요놈 한나 달랑 남을랑게비여. 하이고요.

내가 천헌 종년이라고, 자식도 따러서 그럴 거이나. 아버지가 지신디.

내가 느그 아버지 꼭 찾아줄 거이다. 봉출아. 쪼께만 지달러라.<sup>84)</sup>

강모, 강태, 강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이씨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중 ‘금싸래기 씨앗’으로 봉출이 단 하나만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천헌 종년’의 자식일지라도 기표가 봉출을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봉출이 종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은 봉출이 아버지를 찾아 양반 이씨로 살게 되는 ‘회복 상태’로 우레를 좀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레의 서사 과정은 이처럼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에 강모와 강태의 만주행이라는 사건이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면서 결합하고, 여기에 또다시 상피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일, 부적을 넣으려는 시도, 강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맞물려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룬다. 그런데 우레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 사건들은 각각 앞선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 이씨 가문의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 사건들이다. 춘복의 경우처럼 우레의 서사 과정도 그 자체가 기본적인 시퀀스이면서 이씨 가문 중심의 서

---

84) 10권, p.313.

사 과정과 ‘연합’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당골네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도 ‘가능성, 과정, 상태’라는 세 기능에 의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과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들의 서사 과정은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백단과 만동, 그리고 만동의 아버지인 홍술은 그들이 무당과 무부라는 천한 신분이고, 그것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훼손 상태’에 처해 있다. 그래서 홍술은 ‘제발 너는 나뎡이로 살지 말았으면’(5권, 290쪽.)하는 심정으로 백단과 만동에게 자신의 유골을 투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뺨다구 하나 잘 타고나 양반이 된’(5권, 290쪽.) 유골 옆에 자신의 유골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 ‘한 자리에 한 몸뚱이로’ 얼크러질 것이고, 그 명당의 기운이 발복할 때 자신의 자손들도 그 기운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들이 양반과 달리 ‘훼손 상태’인 이유는 타고나는 ‘조상 뺨다구 모양’, 즉 ‘핏줄과 가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반의 유골과 홍술의 유골이 ‘한 자리에 한 몸뚱이로’ 얼크러지는 것은 천한 핏줄과 가문이 고귀한 양반의 그것과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장으로 양반의 명당 기운을 홍술의 자손이 받는 것은 핏줄과 가문이 뒤섞이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홍술의 자손들이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백단과 만동에 의한 투장 사건은 이들을 ‘훼손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투장 사건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사건이 결합되어 있다. 백단과 만동의 관점에서 보자면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사건이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에 투장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결합하면서 맞물리는 것이다.

그러던 작년 세안 동짓달, 동지를 바로 앞둔 어느 날, 그네는 매안의 청암부인 병세가 위중하여 심상치 않다는 말을 거기서 듣게 되었다. (중략)

그 말을 얼핏 들은 그네의 가슴은 그 때, 저도 모르게 툭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흐드르르 떨리더니 이윽고 가슴의 밑바닥에서부터 육중한 힘으  
로 서리를 틀려 회오리져 밀고 올라오는, 그 어떤 다른 말로도 형언할 길  
없이 오직 벽차면서 터질 듯

“드디어.”

라고밖에 하지 못할 희열을 지그시 누르며 눈을 감았다.

“드디어 아버님을 뵈시게 되었다.”<sup>85)</sup>

백단과 만동이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술의 유골을 양반의 산소에 투장하는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홍술  
의 죽음 이후 삼사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양반의 산소를 찾지 못해 투장을 결행하지  
못한다. 그러던 차에 ‘드디어’라는 백단의 말처럼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사건이 일어  
난다. ‘그 가문에 그 뼈대에 그 풍모에 그 인품에’(5권, 325쪽.) 흠잡을 데 없는 대갓  
집 종부 청암부인의 임종으로 애가 타게 기다리던 양반의 명당 자리가 나타난 것이  
다. 그러므로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사건은 이들이 투장이라는 ‘회복 과정’으로 나아  
갈 수 있는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백단과 만동은 청암부인의 산소에 홍술의 유골을 밀어넣는 투장 사건을  
저지른다. ‘양반도 천골도 없는 합방을 허시고, 양반도 천골도 다 뛰어넘는 결물 아들  
하나만 낳으시요’, ‘그 아들 음덕을 우리에게 끼쳐 주시요’(5권, 326쪽.)라는 만동의 말  
에서도 드러나듯 투장 사건은 양반과 천골이 뒤섞이고 그 기운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핏줄과 신분’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만동과  
백단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서사 과정은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  
나고 만다. 투장이 발각되어 백단과 만동이 덕석말이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  
다. 이 사건은 백단과 만동의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 투장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

---

85) 5권, p.323.

서 백단과 만동의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기능한다. 중요한 점은 덕석말이 사건 자체가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백단과 만동의 ‘훼손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단과 만동의 ‘회복 과정’에 ‘회복 상태 도달 실패’가 맞물리고, 그것이 다시 백단과 만동의 ‘훼손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회복 과정’에 ‘회복 상태’가 아닌 ‘훼손 상태’가 맞물린 것이므로, 바꿔 말해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의 ‘훼손 상태’이므로 이전의 ‘훼손 상태’보다 더 악화된 ‘훼손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투장이 발각되어 덕석말이 당하는 사건은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에서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투장 사건에 맞물려 백단과 만동의 ‘회복 상태 도달 실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백단과 만동의 더 악화된 ‘훼손 상태’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sup>86)</sup>

양반의 멩당 흠칠라다가 저 집구석 누구 하나 옹게 죽어나갈 거이다, 인자. 그렇게도 모질게 두드러 맞고 살이 터져 백다구 흐영게 드리났는디, 만동이 저거 종내 살까? 덕석 뱃겨 내는디 봉게로 살점이 기양 덕석에가 덩클덩클 묻었등만. 참말이지 끄찍허고 참혹허드라. 좌청룡 우백호가 대관질 머이간디 죽은 조상 백다구가 산 자손 생목숨 생백다구를 잡능고오.<sup>87)</sup>

“죄? 죄가 왜 없어? 천하 상것 불상놈으로 태어난 거이 벌써 죄 아니라고? 상놈이 머이여, 상놈도 못된 처지제. 흥술이가. 천민잉게. 가진 놈은 무신 짓을 해서 더 갖든지 그것은 죄가 아니고, 못 가진 놈은 가진 놈 것 눈짓으로 넘어다만 봐도 그게 바로 죄디 머.”<sup>88)</sup>

86) 투장이 발각되어 덕석말이 당하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관점 안에서 ‘회복 상태 도달 실패’와 ‘훼손 상태’라는 상이한 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의 결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87) 7권, p.184.

88) 7권, pp.219-220.

덕석말이는 양반이 마을의 향약이나 풍속 등을 어기는 자들을 응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포함하고 있다. 백단과 만동이 덕석말이를 당한 것도 ‘상놈도 못된 처지’인 천민이 양반의 명당을 탐냈기 때문에 양반에 의해 천민이 응징을 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백단과 만동의 관점에서 덕석말이 사건은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에서 그들이 천한 신분에 속한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된 사건이다. 즉, 양반의 것을 탐냈다 하여 양반에게 덕석말이를 당하는 ‘천하 상것 불상것’도 못되는 처지인 천민으로 태어난 그들의 ‘죄’를 확인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덕석말이 사건은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백단과 만동의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러나 덕석말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백단과 만동의 ‘훼손 상태’와 투장 사건 이전의 ‘훼손 상태’가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백단과 만동이 이전의 ‘훼손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말할 순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덕석말이 사건은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이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맺어지고,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을 다시 한번 절감한 사건이다. 양반의 것을 탐냈다 하여 물매를 맞아 ‘뺨다구’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 되어 천민으로 태어난 ‘죄’를 서럽게 절감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덕석말이 사건이 나타내는 ‘훼손 상태’는 이전의 ‘훼손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은 ‘회복 과정’에 ‘회복 상태 도달 실패’가 결합하고, 여기에 이전보다 더 악화된 ‘훼손 상태’가 맞물리는 것으로 끝맺어진다. 그러나 여기에 또다시 ‘훼손 상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결합하는데, 그것은 백단이가 우리의 ‘회복 과정’에서 동맹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백단이도 한 많은 사램이여. 매안 이가라면 이가 갈리는 사램이고. 즈

그 시아부니 백다구 조계 잘되게 해 불라고 투장했다가 덕석말이로 디지게 뚜드러 맞아 즈그 서방이 다 죽게 되얏는디 산 구신의 원한이 없겠는가? (중략) 백단이가 매안 이가들 씨가 말러 망허는 꼴을 꼭 내 눈구녁으로 보고야 말졌다고 그러대. 이런 부적, 백 장이라도 천 장이라도 씨 줄 거잉게 열매든지 오라대. 기어이 소원을 성취해서 새터서방님이고 대실서방님이고 머이고 다 씨를 말리고, 절대로 매안으로는 다시 못 오게 헌디야. (중략) 백단이도 아조 작심을 했드라고. 우리 봉출이로 대를 이어가게 허는 꼴을 꼭 보고야 말졌다고 그러대.”<sup>89)</sup>

브레몽은 한 서사 과정의 주인공과 동맹자의 관계 중 동료로 동맹자가 처신하는 경우를 주인공과 동맹자가 동일한 일의 수행에 공통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에 따라 두 인물의 전망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90)</sup> 다시 말해 동맹자가 주인공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그를 돕는 경우 그 동맹자는 주인공과 현재적 이익을 주고받는 동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인공과 동맹자의 전망이 일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단이는 우례의 서사 과정에서 동료로서의 동맹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강태와 강모를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부적을 써주어 봉출이가 이씨 가문의 아들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우례의 ‘회복 과정’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백단이가 원하는 것은 ‘매안 이가들 씨가 말러 망허는 꼴’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절반은 노비라는 천한 핏줄이기에 추씨로 살아가고 있는 ‘봉출이로 대를 이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우례의 ‘회복 과정’과 일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봉출이를 이씨 가문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우례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에 우례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단이는 동료로서의 동맹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례의 서사 과정에 편입하여 우례와 동일한 전망, 즉 봉출이를

---

89) 9권, p.310.

90) C, Bremond, op., cit., 395.

이씨 가문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 과정’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백단이가 부적을 써주는 사건은 우례의 서사 과정 중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우례의 ‘회복 과정’이고, 백단이 자신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라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백단이가 악화된 ‘훼손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례를 돕고 있고, 그것이 봉출이를 이씨 가문의 아들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회복 과정’이므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옹구네의 경우처럼 백단과 만동 자신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에 이들이 편입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은 이들의 ‘훼손 상태’에 ‘회복 가능성’으로 청암부인의 임종과 ‘회복 과정’으로 투장 사건이 결합하고, 다시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덕석말이 사건이 맞물리면서 더 악화된 ‘훼손 상태’로 이어지고, 여기에 다시 새로운 ‘회복 과정’으로 부적을 써주는 사건이 맞물리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sup>91)</sup> 그리고 이들의 서사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 청암부인의 임종과 투장 사건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 사건들이므로 이들의 서사 과정도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춘복과 옹구네, 우례,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은 각각 ‘훼손 상태’에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맞물리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다. 춘복과 그 동맹자로서의 옹구네의 경우는 상피 사건, 강실을 탐하게 되는 사건이 ‘회복 가능성’으로 기

---

91) 이렇게 볼 때,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은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과정, 즉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회복 가능성’, 투장 사건이라는 ‘회복 과정’, 투장의 발각과 덕석말이 사건이라는 ‘회복 상태 도달 실패’의 기본적인 시퀀스가 이들의 ‘훼손 상태’와 악화된 ‘훼손 상태’에 맞물려 삽입식 결합을 이루고 있는 복합적인 시퀀스라 할 수 있다. (C, Bremond, op., cit., pp.388-392. 각주 21번 참조.)

능하고 있으며, 여기에 춘복의 강실 겁간, 옹구네의 납치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결합하고 있다. 우례의 경우도 강모와 강태의 만주행, 옹구네의 납치가 각각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 과정이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맺어지긴 하지만 그 역시 청암부인의 임종이라는 ‘회복 가능성’과 투장 사건이라는 ‘회복 과정’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서사 과정이 ‘훼손 상태’에 우례의 동맹자로서의 ‘회복 과정’이 맞물려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도 ‘훼손 상태, 회복 가능성, 회복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구조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서사 과정이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서사 과정은 ‘핏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서사 과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서사 과정을 살펴보면, ‘훼손 상태’와 그것을 극복하여 ‘회복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회복 과정’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회복 과정’과 ‘회복 상태’의 구체적인 모습이 인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회복 과정, 회복 상태’라는 형식은 같지만 그 내용이 인물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춘복과 그 동맹자로서 옹구네가 도달하고자 하는 ‘회복 상태’는 강실이 춘복의 여자가 되어 그의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회복 과정’은 춘복이 강실을 겁간하고, 옹구네가 강실을 납치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우례가 도달하고자 하는 ‘회복 상태’는 봉출이가 이씨 가문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것에 좀더 다가서는 옹구네의 강실 납치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백단과 만동의 ‘회복 상태’는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봤을 때, 투장이 성공해 홍술의 유골과 청암부인의 유골이 얼크러지고, 그 기운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 과정’은 투장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들의 ‘회복 과정’과 ‘회복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핏줄과 신분’에 의한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이 사라진 상태가 ‘회복 상태’이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 대립항을 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회복 과정’인 것이다. 춘복과 옹구네의 ‘회복 과정’은 강실의 임신에서 볼 수 있듯이 양반의 고귀한 핏줄에 춘복의 천한 핏줄을 섞어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무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회복 상태’는 천한 신분의 춘복이 양반 가문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대립항이 무화된 상태이다. 우례의 ‘회복 과정’과 ‘회복 상태’도 절반은 노비라는 천한 핏줄을 타고난 봉출이 양반 가문의 아들이 되는,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이 사라지는 ‘과정과 상태’이다. 백단과 만동도 투장 사건으로 양반과 천골의 유골을 섞어 그 대립항을 무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 기운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쳐 대립항이 사라진 ‘회복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의 의미는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핏줄과 신분’에 의한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천한 핏줄과 양반의 핏줄을 섞고, 천한 신분의 인물이 양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과정으로 무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피를 섞어, 씨를 섞으면, 양반이 상놈 되고 상놈이 양반 되게, 양반도 상놈도 한 몸이 되능 거여’(10권, 319쪽.)라는 옹구네의 말처럼 양반의 고귀한 ‘핏줄과 가문’에 천한 신분의 ‘핏줄과 가문’을 섞음으로써 ‘핏줄과 신분’에 의한 대립항을 무화시키고, 그를 통해 천한 신분과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들의 서사 과정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서사 과정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결합하여 더 확장된 의

---

92) 춘복과 옹구네, 우례, 만동과 백단이 봉건 지주 계급에 대립하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보고, ‘신분 세습이 상민들에게 가져다준 한과 욕망은 양반과 피를 섞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변동천하”의 꿈으로 나타난다’고 본 백지연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백지연, 앞의 글, pp.201-205.)

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서사 과정은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하는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어내고 있다.<sup>93)</sup> 이씨 가문 중심 서사에서 ‘회복 상태→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가 결합을 이루어 복합적인 시퀀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불』의 서사를 이루는 두 갈래의 이야기, 즉 이씨 가문의 인물들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 중심의 이야기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이야기의 결합에 의한 이 복합적인 시퀀스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이 ‘핏줄과 가문 지키기 실패’로 끝맺어지면서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의미를 나타냈다. 여기에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을 의미하는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의 서사 과정이 맞물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서사 과정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인 시퀀스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이 양반인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에 천한 신분인 자신들의 ‘핏줄과 가문’을 섞는 ‘회복 과정’이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는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이라는 ‘훼손 과정’으로의 전락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이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넘어서려 하고 있고, 그것이 양반인 이씨 가문의 위태로운 상황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반 계급이 몰락해 가고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이 사라져 가는 과정, 즉 신분 제도라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의 서사 과정이

93)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분석했기에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 창씨개명도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서사 과정의 ‘vs.’의 결합을 나타낸다. ‘너나 나나,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놈 성씨 따고 이름 따고 일본놈맹이로 살고 있는데, 머어이 달르냐’, ‘조상 팔고 이름 갈기는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3권, 30쪽.)이라 기체에게 대드는 쇠여울네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에게 창씨개명이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무화시키는 사건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갈래의 이야기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며 생산해내는 의미인 것이다.<sup>94)</sup>

---

94) 중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만큼 확실한 서사 과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한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과 그만큼 강한 결합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시켰으나, ‘매안’의 또다른 서사 배경인 ‘고리배미’에 속한 인물들 중심의 서사도 단편적이거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와 ‘연합’의 결합 양상을 나타내고, ‘불건적 질서의 붕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고리배미의 인물들 역시 그들이 중로들과 타성바지들이기 때문에 양반들에게 천시를 받는다(3권, 270-271쪽.)는 점에서 양반을 반대항으로 설정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건을 일으키거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인인 고리배미 인물 엄장업이 양반들의 전유물인 정자관을 쓰고 양반 노릇을 하다가 매안 이씨 가문의 양반들에게 덕석말이를 당하는 정자관 사건(5권, 155-160쪽.)은 ‘회복 상태 도달 실패’로 끝맺어지나, 이후의 고리배미의 중인 아낙들이 양반의 ‘핏줄과 가문’을 상징하는 택호를 자신들도 소유하고자 하는 택호 사건(8권, 227-239쪽.)은 고리배미 인물들 중심 서사에서 ‘회복 과정’인 동시에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 ‘훼손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 결합으로 신분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구조

청암부인의 임종 후 세 번째 이야기 갈래인 만주 봉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사가 시작된다.<sup>95)</sup> 『혼불』의 서사를 이루는 세 갈래의 이야기 중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의 연관성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이다. 앞서 분석했듯이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가 ‘뗏줄과 가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확장된 ‘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적 핵심을 중심으로 매안 이씨 가문의 양반들과 상민과 천민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것과 달리 만주 봉천의 이야기는 만주의 조선 이주민들의 역사와 그들의 생활, 고조선에서 백제와 후백제를 거쳐 조선까지의 민족의 역사 등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는 동떨어진 서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씨 가문의 인물인 강모와 강태가 등장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 역시 브레몽의 서사모델인 ‘훼손-회복’의 구조로 파악해낼 수 있으며, ‘훼손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을 거쳐 ‘회복 과정’으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을 기본적인 시퀀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의 서사 과정을 분석해내고,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의 결합 양상을 밝혀내 보려고 한다.

---

95) 정확하게는 청암부인의 입관 직후 만주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의 강모와 강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의 이야기가 청암부인의 임종을 기점으로 부각된 것이라면, 만주 봉천의 이야기는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혼불』의 초반 서사와 후반 서사의 단절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 전에 우선, 매안 중심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확실히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 중심의 이야기가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에 대한 이야기라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는 조선 이주민과 유랑민, 조선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종의 서사의 확장을 이룬 셈인데, 단지 서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순 없다. 즉, 그 내용이 상이하다고 해도 아무런 인과적, 논리적 관계없이 서사의 확장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다.<sup>96)</sup>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와의 연관성, 바꿔 말하면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인과적, 논리적 관계를 찾는 것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서사의 확장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만주 봉천의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의 서사 과정이 설명되고,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의 결합 양상도 나타날 것이다.

## 1. 서사의 확장과 결합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이야기를 이끄는 동인인 서사적 핵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안 중심의 이야기가 양반과 상민, 천민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는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매안 중심의 이야기는 ‘핏줄과 가문’, 그리고 그것이 확장

96)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에 대한 서사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매안 중심 이야기에서의 서사의 확장을 나타낸다는 것은 두 이야기의 관계를 ‘우리는 자기 가문 찾기, 자기 핏줄 찾기의 열망이 일체에 맞서는 민족혼의 복원이라는 대명제로까지 나아가는 보기도문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평가한 백지연의 논의로 뒷받침된다. (백지연, 앞의 글, p.207.)

된 ‘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의 핵심에 의해 그 이야기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의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에 대한 내용도 어떤 서사의 핵심이 이야기를 이끄는 동인으로 그 구성을 이루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이야기의 서사의 핵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 서사의 확장이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다. 즉, 서사의 핵심 사이의 관계가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의 논리적, 인과적 관계를 해명하여 서사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매안 중심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은 ‘뗏줄과 가문’이라는 서사적 핵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확장된 의미의 ‘뗏줄과 가문’이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를 이끄는 서사적 핵심이고, 이것이 매안 중심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을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청암부인 임종 직후 등장하는 인물인 심진학의 말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청송(靑松) 심가(沈哥)다. 아직까지 그곳에 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꼭 나의 관향, 나의 본, 청송에 가보고 싶다. (중략) 뿐만 아니라 나의 성씨를 맨 처음 쓰기 시작하신 나의 뿌리, 최초의 거룩한 씨앗, 시조(始祖)께서 나셨던 고을 관향에 가 본 이는 더욱 많지 않다.”<sup>97)</sup>

‘본(本)’이란 글자 그대로 ‘근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한 몸 존재의 근본.<sup>98)</sup>

“이 세상에 근본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흑자는 훗날에 오다가 잃거나 잊어버릴 뿐.  
허나, 근본을 모르고서야 뿌리 없는 줄기가 어떻게 창창히 뻗어 나가며

97) 3권, p.222.

98) 3권, p.223.

가지는 또 어떻게 우거질 것인가. 하물며 열매야.

내가 오늘 우리 성씨의 수수만만 잎사귀 중에 한 이파리로서, 내 조상의 맥을 짚어 올라가는 것은, 나아가 곧 겨레의 맥을 짚는 일과 꼭 같은 것이다. 그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바로 한 몸의 조직, 이 손과 저 손의 엽맥인 것이다. 그 맥들이 모여 우리 민족의 역사 세포와 모세 혈관, 힘줄, 근육, 그리고 뼈와 살을 이루느니.<sup>99)</sup>

심진학은 전주고보의 역사선생으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고, 강모와 강태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sup>100)</sup> 그런 인물이 첫 등장 때 서술하는 것이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의 ‘관향과 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관향’이란 ‘나의 성씨를 맨처음 쓰기 시작한 나의 뿌리, 최초의 거룩한 씨앗, 시조께서 나셨던 고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 존재의 근본’이 된다하여 ‘본’이라 부르는 곳이다. 곧 ‘성씨와 조상’이라는 자신의 존재의 ‘근본과 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관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씨와 조상’이란 무엇인가? 시조에서부터 ‘핏줄과 가문’에 따라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씨이고, 후손과 ‘핏줄과 가문’에 의해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조상이다. ‘성씨와 조상’은 ‘핏줄과 가문’을 의미하는 다른 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란 결국 ‘핏줄과 가문’이라 할 수 있다.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의 ‘핏줄과 가문’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로 그 의미의 확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으로부터 이와 같은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확장된 ‘근본과 뿌리’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에서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

---

99) 3권, p.224.

100) 심진학은 확실히 강모와 강태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인물에 의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가 이끌어지고 있다고 말할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를 ‘심진학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일 운동과 일제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보고, 심진학을 ‘매안에서의 청암부인의 역할에 비견’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 논의가 이를 입증한다고 판단된다. (이윤영, 앞의 글, p.456.)

다. ‘성씨와 조상’이라는 맥들이 모여 ‘겨레와 민족’을 이루므로 ‘성씨와 조상’의 맥을 짚어 올라가는 것이 곧 ‘겨레와 민족’의 맥을 짚는 일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씨와 조상’이 모여 ‘겨레와 민족’이 된다는 것은 ‘핏줄과 가문’이 모여 ‘겨레와 민족’을 이루어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핏줄과 가문’은 나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본과 뿌리’일 뿐 아니라 ‘겨레와 민족’의 ‘근본과 뿌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로써 ‘성씨와 조상’의 맥을 짚는 일이 곧 ‘겨레와 민족’의 역사, 즉 그것이 어떤 ‘근본과 뿌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맥을 짚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겨레와 민족’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민족의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이다. 즉, 만주 봉천 중심의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에 대한 역사를 살피는 이야기는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 서사를 이끄는 동인인 ‘근본과 뿌리’에 의해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과 뿌리’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를 이끄는 서사적 핵심이라는 것은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의 ‘훼손 상태’에서도 분석해낼 수 있다.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핏줄과 가문’,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의 핵심이 인물들의 ‘훼손 상태’에서 비롯되었듯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에서도 인물들의 ‘훼손 상태’에서 ‘근본과 뿌리’라는 서사의 핵심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훼손 상태’가 이들이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토록 오랜 우리의 성씨를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무도하게도 깡그리 부수고 근거를 말살하여, 창씨(創氏) 개명(改名)하라 한다. 저희들 일본식으로 바꾸라 한다. 안 바꾸면 죽이겠다 하니, 목숨이 더러워 어쩔 수 없고,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시국을 원망하며 창씨하는 경우, 자신의 본관을 성씨로 세우는 사람도 많다. 그나마 참혹한 마음 한 자락을 눈물로 비밀 수 있기 때

문이다.”<sup>101)</sup>

“그건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말이야. 색목(色目)의 이국인이 먼저 착수를 했어. 조선 사람, 역사 선생, 나 또한 고향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 만주별관 낯선 곳으로 야반도주 도망은 이민이니, 이 모든 것이 곧 내 이야기라. 안 그런가?”<sup>102)</sup>

위의 인용문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인 심진학의 ‘훼손 상태’를 나타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씨’는 시조로부터 후손에게까지 ‘핏줄과 가문’을 따라 이어져 내려오는 나 자신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과 뿌리’이다. 그런데 창씨개명으로 인해 까마득히 먼 시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토록 오랜 우리의 성씨’, 나 자신을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리는 ‘훼손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진학은 ‘고향’을 버리고, ‘만주별관 낯선 곳으로 야반도주 도망 온’ 이주민이다. ‘고향’은 ‘관향’처럼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는 곳이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나와 같은 ‘핏줄과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조상’들과 함께 묻힐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진학이 ‘고향’을 버리고 타향 만리 북방의 삭지(朔地)에 머물고 있다는 것 역시 ‘근본과 뿌리’로부터 떨어진 그의 ‘훼손 상태’인 것이다.

강모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훼손 상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 부유와 부랑의 물살에 실려, 만주 봉천, 이제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가 아니라 청나라 왕조의 발상지. 강모는 삭풍 속에서, 맨 처음 향리를 떠나던 전주로 입성(入城)할 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말씀과, 그 전주를 버리고 떠나 오던 정회를 되돌이키며,

“머무는 곳을 소중하게 알아야 한다.”

---

101) 3권, pp.233-234.

102) 10권, p.14.

하셨으나, 이 낮설고 먼 세상의 어디에도 도무지 마음을 내릴 수 없는 자신이 축고 쓸쓸하여 서성거린다.

그는 전주가 그리웠다.<sup>103)</sup>

강모는 그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제 핏속을 황사처럼 떠돌며 그렇게 자꾸만 경기전이나 조경묘·조경단 쪽으로 발길을 이끌어 나갔던 것은, 어쩌면 그가 전주 이씨로서, 전주에 본을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 영명하신 한 임금의 대군(大君) 낙남파(落南派) 종갓집 종손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와 문득 반추해 본다. (중략)

못났으나 잘났으나, 이 나를 있게 한, 피 한 점, 살 한 점.

에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닿고 싶은 그리움. 설령 그것이 비록 채송화씨 반토막만한 인자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어히 한번 가 닿아 보았으면 싶은 안타까운 절실함.

그런 것들이 전주의 인력(引力)이었다.<sup>104)</sup>

전주는 강모의 관향이다. 처음 전주에 입성했을 때, 강모는 핏속을 떠도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이 ‘전주 이씨로서, 전주에 본을 가지고 있는 종갓집 종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주는 강모 자신을 존재하게 한 시조와 조상들의 ‘피 한 점, 살 한 점’이 있는 관향이고, 그렇기에 ‘핏줄과 가문’을 따라 수천년을 거슬러 올라가 조상들에게 닿고 싶은 ‘안타까운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인력’을 지닌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향일 뿐 아니라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떠나 낮선 만주 봉천에서 머물며 전주에 입성 하던 때를 떠올리고, 전주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강모의 상태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이다.

강태 역시 매안을 버리고 떠나 낮선 이국의 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과 뿌

---

103) 8권, p.109.

104) 8권, p.112.

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강태뿐만이 아니라 만주 봉천에 머물고 있는 조선 이주민들 모두가 이와 같은 '훼손 상태'에 처해 있다. 만주 봉천으로의 이주가 강제적인 것이었든 자발적인 것이었든지 간에, 또한 이주 온 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든지 간에 그들 모두가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는 '관향, 고향' 더 나아가 '조국'을 떠나왔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심진학의 '성씨'라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 역시 강모와 강태, 더 나아가 조선 민족 모두의 '훼손 상태'이다. 자신이 '조선 사람'이고, 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일본의 역사를 국사(國史)라 하여 가르치는'(10권, 23쪽.) 불행한 식민지의 역사 선생이라 말하는 심진학의 '훼손 상태'에서 볼 수 있듯이 '조국'을 잃고 일제에 의해 지배당하는 식민지의 '조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선 민족 모두가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들의 이야기인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근본과 뿌리'라는 서사적 핵심이 그 기저에서 작용하면서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에서 더 나아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서사적 핵심에 의해 이야기가 이끌어지기 때문이다. 매안 중심의 이야기의 서사적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근본과 뿌리'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그것에 의해 만주 봉천 중심의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들의 이야기가 이끌어지는 서사의 확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안 중심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와의 결합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가? 브레몽의 서사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혼불』만의 서사문법이 여기에서 창출된다.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모델은 보편적 서사문법, 바꿔 말하면 모든 작품 또는 가능한 대다수의 작품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유형화한 것이다.<sup>105)</sup>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안 중심의 이야기는 브레몽의 서사문

105) 브레몽의 서사 문법이 문학 작품에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구조란 '항존하는 것 또는 불변의 것'이며, 브레몽의 목적이 특정 몇몇 작품이 아닌 모든 작품에서의 '불변의 것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구체적인 작품들에 비하면 지극히 "추상적인

법에서 ‘훼손→회복’ 또는 ‘회복→훼손’의 서사 과정을 기본적인 시퀀스로 나타내며,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와의 결합도 각각의 기본적인 시퀀스가 ‘연합’의 양상으로 맞물려 복합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만주 봉천의 이야기와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와의 결합은 브레몽이 유형화한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 양상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서사 구조가 아닌 『혼불』만의 서사문법을 창출해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브레몽의 서사문법에 따르면, ‘훼손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서사 과정의 주인공과 그 서사 과정에 관련된 다른 인물의 관계는 동맹자나 적대자이다. 동맹자란 주인공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고, 적대자란 주인공이 ‘회복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sup>106)</sup>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과 종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의 결합 양상은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들이 이씨 가문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렇기에 두 이야기가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안 중심의 서사와 같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브레몽의 서사문법으로 설명되려면, 강모와 강태가 이씨 가문의 인물로서 그 서사 과정에 동참하거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 관련된 동맹자나 적대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모와 강태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에서 강모와 강태는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벗어나 있고, 또한 동맹자나 적대자의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 강모와 강태 뿐 아니라 심진학까지 만주 봉천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이나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독립된 새로운 의미의 ‘훼손 상태’로부터 서사 과정을 시작

---

성질’의 것’이라 설명한 한일섭의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일섭, 앞의 글, pp.256-257.)

106) C. Bremond, op., cit., pp.393-395.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은 보편적, 일반적 서사문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혼불』만의 서사 구조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레몽의 서사문법의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 양상으로는 설명되지는 않지만 매안 중심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과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결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합은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한 창씨개명과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창씨개명이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리는 ‘훼손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 분석하였으므로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의 ‘훼손 상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참 이상한 일이었지. 왜 그랬던고. 나는 마치 무슨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 관수 공사를 서둘렀네. (중략) 현대, 이듬해……막바지로 공사가 치달아 마무리가 되려는데, 꼭 기다렸다는 듯이, 나라가 망했다, 하지 않는가. (중략)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와중에서도 남모르게 벅찬 희망이 샘솟았다는 것이야. 땀줄 해 보면, 왜, 우아랫쪽이 맞물려 돌면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만, 껍질도 벗겨지지 않은 채 통째로 빠져 나오는 놈이 있지 않던가? 신기하지. 꼭 그 통밀이나 통팥, 녹두같이 또글또글 살아서 튀어나온 희망, 그것이 저수지였어. 그 때 나는 믿었네. 우리 조선이 망했다 하지만, 결코 망할 수 없는 기운을 값아서 여기 우리 매안이 저수지에다 숨겨 둔 것이라고. 남모르게 그득 채워 채워 놓고 우리를 살려 줄 것이라고. 예사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모두가 다 뜻이 있지. 밖으로 난 숨통을 왜놈이 막았다면, 한 가닥 소중한 정기는 땅밑으로 흘러서 예 와 고인 것이라 나는 확신했네.”

청암부인은 인월댁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러매, 저것이 혈(穴)이지. 혈.”

그런데 지금 그 ‘혈’이 마르고 있는 것이다.<sup>107)</sup>

앞서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분석했듯이 저수지 공사와 완성은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이 매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만큼 이씨 가문의 ‘회복 과정’으로 절대화되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인용문의 청암부인의 말을 통해 나타나듯이 한일합방이 매안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이유는 저수지에 ‘우리 조선이 망했다 하지만, 결코 망할 수 없는 기운’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맺들 질을 해도 꺾질도 벗겨지지 않은 채 빠져나오는 곡식처럼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했어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민족의 정기가 저수지에 고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산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1권, 165쪽.)라는 청암부인의 말처럼 저수지는 조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생산의 근원’이고,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혈’, 즉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조선이 결코 망할 수 없는 기운’, 조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생산의 근원’이자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의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조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 사라졌으므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으로 인해 조선 민족이 다시 일어설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까지 저수지의 존재로 인해 가려져 있던 ‘조국’을 잃고 일제에 의해 지배당하는 조선 민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은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이 창씨개명과 맞물리면서 ‘성씨와 조국’이라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다시 일어

---

107) 2권, p.33.

설 희망마저 사라진 식민지의 조선 민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08)</sup> 그리고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의 결합 양상 중 하나로 설명할 순 없지만, 이처럼 창씨개명과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으로 이씨 가문의 이야기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결합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sup>109)</sup>

이와 같이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는 매안 중심의 서사에서 서사적 핵심을 이루었던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근본과 뿌리’로 확장되고, 그것이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이야기를 이끄는 서사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나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 ‘겨레와 민족’의 역사를 이루는 ‘근본과 뿌리’라는 서사의 핵심에 의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서 더 나아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와 매안 중심의 서사와의 결합은 창씨개명과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요한 점은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과 두 서사의 결합으로 『혼불』만의 서사문법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살핀 바와 같이 서사의 확장은 ‘핏줄과 가문’ 또는 ‘핏줄과 신분’이라는 서사적 핵심이 ‘근본과 뿌리’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양반과 상민, 천민에 대한 서사에서 조선 민족과 이주민에 대한 서

---

108) 이렇게 볼 때,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은 효원이 청암부인의 혼불을 빨아들이는 사건의 경우처럼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 자체를 가능케 하는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9) 창씨개명과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은 브레몽의 서사이론의 3단계의 기능들 중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는 ‘훼손 가능성’을 나타내고,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는 ‘훼손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서사 과정의 결합을 브레몽의 용어로 표현해보면, 이 사건들이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고, 조선 민족의 관점에서 ‘훼손 상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하는 ‘vs.’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두 서사 과정의 결합이 서사적 핵심의 의미 확장에 의한 ‘양반 가문의 위기’ 또는 ‘봉건적 질서의 붕괴’에서 ‘자신의 존재와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사로의 확장이고, ‘훼손 가능성’과 새로운 서사 과정의 첫 단계인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의 결합이므로 ‘=’로도 표현된다.

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양반과 상민, 천민들의 ‘봉건적 질서 붕괴’를 의미하는 서사에서 자신의 존재와 조선 민족,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는 서사로의 확장이다. 그리고 두 이야기의 결합은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훼손 가능성’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훼손 상태’와 맞물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양반 계급의 몰락’ 또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을 의미하는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서사 과정 중 ‘훼손 가능성’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조선 민족,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라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두 서사 과정이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에 브레몽의 용어 중 ‘vs.’로 표현되는 서사의 확장과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로의 확장과 매안 중심의 서사와의 결합은 ‘=’로도 표현된다. 앞서 살폈듯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매안 중심의 서사와는 상이한 의미의 ‘훼손 상태’로부터 새로운 독자적인 서사 과정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강모와 강태는 이들이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이씨 가문의 관점에서 ‘훼손 가능성과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던 강모와 강태가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이 시작되자, 이전의 관점과는 상이한 새로운 관점을 취하여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독립되어 있는 새로운 서사 과정을 주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 독자적인 새로운 서사 과정의 시작 단계가 맞물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안 중심의 서사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로의 확장과 그 결합은 ‘=’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sup>110)</sup>

이와 같이 두 서사 과정 간의 관계가 ‘vs.’와 ‘=’ 두 가지 모두로 표현되는 것은 브

110) 여기서의 ‘=’의 개념은 브레몽이 제시한 기능들 간의 조합에서 ‘가능성’과 ‘상태’라는 두 기능이 맞물리는 모습에 대한 형식적인 개념만을 취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레몽이 제시한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 양상 중 어느 것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메인 중심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과 그 결합으로 인해 보편적, 일반적인 서사문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혼불』만의 서사문법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만주 봉천 중심의 ‘훼손→회복’의 서사 구조

브레몽의 서사문법으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이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들, 더 나아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로부터 서사 과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에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약하나마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맞물려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상태’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이 어떤 양상으로 기본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 인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에서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에 처한 인물들과 조선 민족, 이주민이 그 ‘훼손 상태’를 극복하고, 도달해야 하는 ‘회복 상태’란 ‘근본과 뿌리’를 다시 찾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은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를 탐구하고,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살피는 것으로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을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 ‘근본과 뿌리’를 다시 찾은 ‘회복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은 심진학의 말을 통해 암시되고 있다.

우리 조선, 비록 국호는 없어졌다 하나, 나라는 여전히 백성을 품고 있

으니, 우리가 제 핏줄과 성씨를 확실히 간수 건사하고 있노라면, 이 성씨들이 켜켜이 성(城)을 지어 지키는 나라를 누가 감히 파고들어 오겠는가. 정치적으로는 멸망하였을지 모르나, 결코 귀화 승복하지 않은 성통(姓統)과 정신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등걸 죽은 자리에 또 새순 날 것인데. (중략)

나는 생각한다.

나를 찾는 길이 곧 나라를 찾는 길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조국을 알 것이 아니냐. 모국(母國)이라는 말에는 어머니가 들어가고, 조국(祖國)이라는 말에는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속뜻을 곰곰이 짚어 보기 바란다.<sup>111)</sup>

앞서 밝혔듯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성씨, 조상, 고향, 조국’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인물들,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의 ‘훼손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심진학은 ‘조국’이라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조선 민족의 ‘훼손 상태’가 극복되고 ‘결코 귀화 승복하지 않은 성통과 정신’으로 ‘등걸 죽은 자리에 또 새순’이 나듯이 ‘회복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조선’이라는 국호가 없어졌다고 해도 ‘나라는 여전히 백성을 품고’ 있으므로 그 백성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핏줄과 성씨’를 간수 건사하여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백성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를 지켜나간다면 ‘조국’이라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조선 민족의 ‘훼손 상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회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나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 즉 ‘핏줄과 가문’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겨레와 민족’이다. 그러므로 ‘조국’이라는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겨레와 민족’을 이루는 자신의 존재의 ‘근본과 뿌리’를 지켜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모여 ‘조국’이라는 조선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

111) 3권, pp.228-229.

그렇기에 ‘나를 찾는 길은 곧 나라를 찾는 길’이라 심진학은 말한다. 이것은 ‘회복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회복 과정’까지 제시해준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 나의 존재를 이루어낸 ‘근본과 뿌리’를 탐구하는 것은 그것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조국’의 ‘근본과 뿌리’를 알게 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조선 민족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고 ‘나라를 찾는’ ‘회복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는 나 자신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인 동시에 조선 민족과 이주민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이다. ‘핏줄과 가문’이 모여 ‘겨레와 민족’을 이루므로 ‘핏줄과 가문’, 즉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를 탐구하는 일이 곧 ‘겨레와 민족’, 즉 조선 민족과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찾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심진학과 강모, 강태에 의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이런 시각에서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이들의 ‘회복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핏줄과 가문’이 모여 ‘겨레와 민족’을 이루므로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가 조선 민족과 이주민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이듯이 역으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가 이들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진학과 강모, 강태가 만나 조선 민족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이들의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나로부터 역어 보는 역사(歷史).

역사의 현장을 교과서에서 찾지 말라.

바로 나 자신에게서 역사를 찾으라. (중략)

“내가 누구인가.”

정말 궁금하여 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땅,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증조부, 고조부, 선세(先世) 옷깃을 찾아 오르고 오르면서 드디어

단군 할아버지에 도달하는 길은 절실하고 구체적이다.

내가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12)</sup>

심진학, 강모, 강태에 의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엮어 나가는 역사이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아버지, 아버지가 살던 땅’ 등을 거쳐 절실하고 구체적으로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상징하는 ‘단군 할아버지’에 도달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란 나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를 살피는 일에서 출발하여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의 ‘근본과 뿌리’를 탐구하는 일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의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해 민족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는 사건이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이들의 ‘훼손 상태’를 극복하는 ‘회복 과정’으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제 신원(伸冤)과 위안의 미학’<sup>113)</sup>이라 지적되기도 한 백제와 전라도의 역사 재구성으로 기울어 있는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sup>114)</sup>가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란 자기 자신의 ‘근본과 뿌리’ 탐구에서 시작되어 민족의 ‘근본과 뿌리’ 탐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지방의 소년이였다면 역사에 대한 인식과 질문이 달랐겠지만 ‘나는 전라도 소년이였다. 그리고 백제의 소년이였다’(8권, 131쪽.)라고 말하면서 백제의 역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심진학을 통해 드러나듯이 자신의 존재를 가능케 한 ‘근본과 뿌리’인 전라도와 백제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구조는 그것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조선 민족, 이

112) 8권, pp.128-129.

113) 김경원, 앞의 글, pp.143-144, 참조.

114) 『혼불』에서의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확실히 백제와 전라도의 역사 재구성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가 부각되는 8권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백제와 전라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전라도 전주를 의미하는 ‘꽃심을 지닌 땅’(8권, 12장.)이 제4부의 제목이라는 점도 그것을 입증한다.

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에 미약하나마 나의 존재를 이루어낸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와 조선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가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결합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구조는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들과 조선 민족,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회복 상태’를 극복하는 기능을 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은 ‘회복 상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근본과 뿌리 찾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IV. 『혼불』의 서사 문법과 그 구조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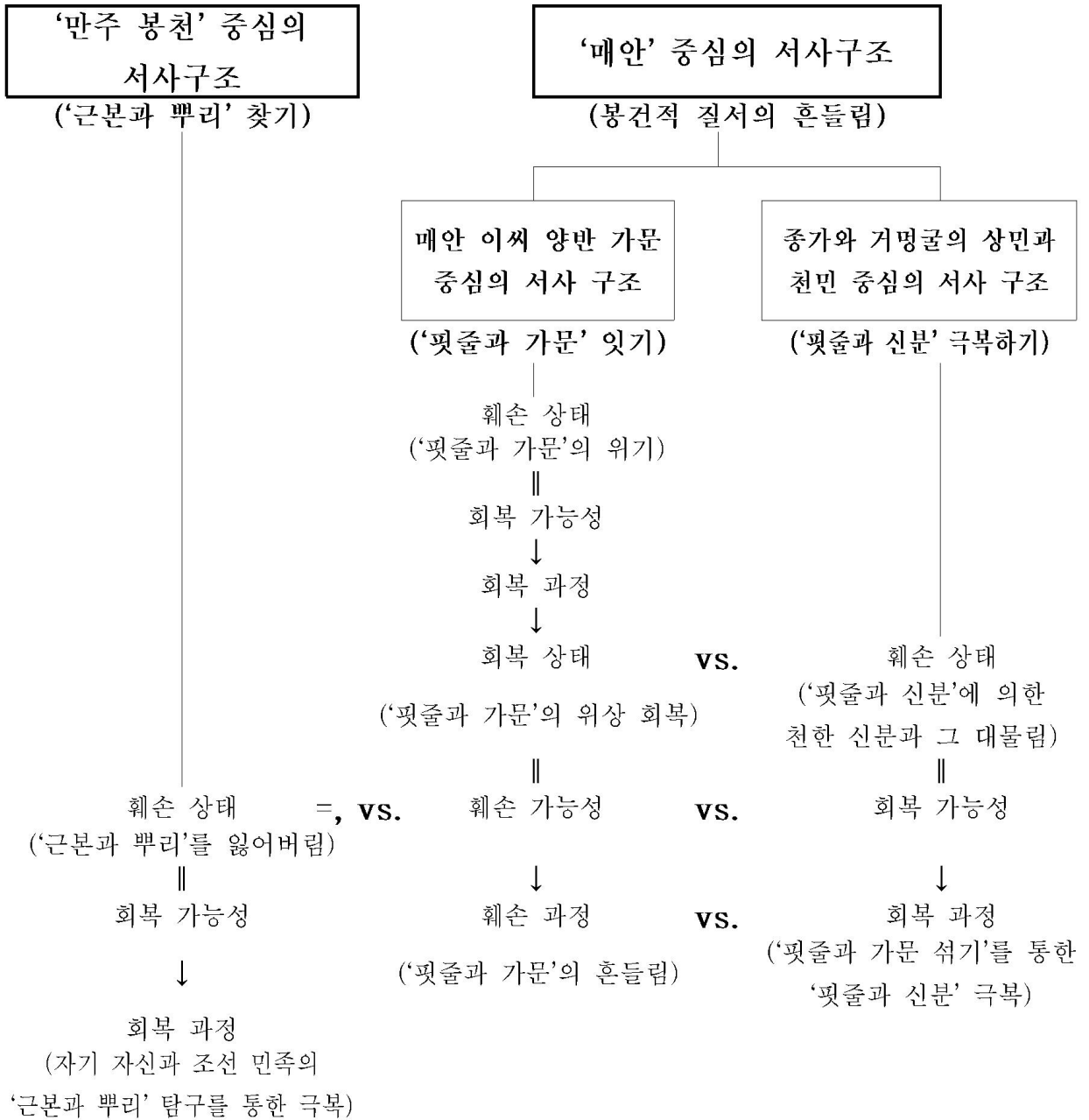
이제까지 『혼불』이라는 거대한 서사 체계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적인 서사 구조를 밝히기 위해 작품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 세 갈래의 이야기 축을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문법으로 분석하여 그 각각의 서사 구조를 밝히고, 그것을 통해 이야기들 간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각각 ‘가능성, 과정, 상태’라는 기능들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시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합의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와 종가의 노비, 거명굴 인물들 중심의 서사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어 복합적인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서사와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와의 결합 양상은 ‘vs.’인 동시에 ‘=’로 표현되는 브레몽의 서사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본적인 시퀀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안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과 그 결합으로 『혼불』 특유의 서사문법이 창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서사 구조의 결합 양상을 구조화한다면 다음과 같다.<sup>115)</sup>

---

115) ‘=’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관점 안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vs.’는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단,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와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에서의 ‘=’은 두 기능의 맞물림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C. Bremond, op., cit., pp.388-389.)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와 그 이후의 서사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에서의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은 그것이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에 맞물리는 ‘삼입식 결합’을 이루고 있으므로 도식화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투장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도 일종의 ‘삼입식 결합’이므로 도식화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혼불』은 비중 있게 나타나는 부차적인 서사와 세 갈래의 이야기 축에 의해 방대한 서사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혼불』은 하나의 이야기이므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어나가는 일관적인 중심 서사가 존재하고, 그것은 세 갈래의 이야기 축 모두가 포함되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서사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과 그것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인물들에 의한 서사 과정, 즉 인물이 사건에 의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해 나가는 양상을 중심으로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부차적인 서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세 갈래의 이야기 축 모두가 논리적,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위와 같은 복합적인 시퀀스를 『혼불』의 중심적인 서사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심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파악되는 『혼불』의 구조적 의미가 무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세 갈래의 이야기 축이 이루는 서사 과정이 모두 ‘과정’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한다면 세 갈래의 이야기가 브레몽의 기본적인 시퀀스가 이루는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인 ‘과정’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위의 구조화된 서사 과정을 통해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서사 과정이 ‘훼손 과정’에,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과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각각의 ‘회복 과정’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부 10권에서 더 나아가는 이야기의 전개가 남아 있다고 한 작가의 말이 존재하고,<sup>116)</sup> 브레몽의 서사문법에서의 기능들 간의 결합이 여러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음<sup>117)</sup>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통점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것으로부터 『혼불』의 서사적 특징 중 하나가 설명되고, 그것의 원인으로 『혼불』의 고유한 서사문법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혼불』 특유의 서사문법에서 비롯되는 서사적 특징 중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특징은 기존의 논의에서 ‘양반에 대한 예찬’<sup>118)</sup>, ‘양반 가문에 대한 비감한 향수’<sup>119)</sup> 등으로 지적되어 온, 전체적인 서사가 양반과 양반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의 의미는 ‘뒤틀림과 가문

---

116) 각주 2번 참조.

117) 각주 46번 참조.

118) 김경원, 앞의 글, p.412.

119) 백지연, 앞의 글, p.204.

의 흔들림'이고,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의 의미는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이며, 그렇기에 이 두 서사 과정의 결합은 신분 제도라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서사 과정이 '상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정'의 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신분 제도라는 '봉건적 질서' 역시 붕괴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림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봉건 사회가 해체되면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시기를 시대적 배경<sup>120)</sup>으로 삼아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상민과 천민들을 그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여전히 봉건적 질서라는 신분 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즉, 양반 대 상민, 천민이라는 대립항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것의 극복을 시도하는 상민과 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극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대립항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매안 중심의 서사에서 서사의 중심이 양반 대 상민, 천민이라는 대립항 중 양반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작품 전체 서사의 내용도 상민과 천민에 대한 내용보다는 양반과 양반문화에 대한 내용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말 났잉게 다 말허제. 자, 인자 저 뱃속으서 나올 거이 양반이요오, 쌍놈이요? 안 그러면 양반 쌍놈 딱 합쳐서 보태 갖꼬 반으로 쪼개서, 없던 시상을 새로 낼 그 누구요?”

빨래 빨디끼 싹 빨어서, 이 던지런 놈의 시상, 상놈의 때 문응 거 중놈의 피 문응 거, 원한 지고 웬수 진 것 줄줄이 이고 가서 깨깎이 빨고 삶어 뽀오영게 질답음허는 시상, 새시상을 나도 보고 자워요. 저 속으서 난놈 밟으면 그런 시상으로 갈랑가아? 흥.

그럴라면 섞어야여. 섞어야 풀려. 아, 풀려야 흐르제에. 저 아랫물 넷물에 물 흘러가디끼. 이 골 저골 물이 합수쳐야 강물로 가제. 깨깎이 뺨 미

120) 『혼불』이 ‘한 시대의 종언과 함께 새로운 시절이 도래하는 과도기적 상황의 필연적 산물’인 ‘지배계급의 몰락사와 피지배계층의 의식 변화’를 쫓아 ‘변동사회의 뒤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장세진, 앞의 글, pp.149-155.)

강실의 복 중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이야기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곧 매안 이씨 양반 가문의 서사 과정과 종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이 ‘과정’의 단계에서 멈추고, 그 결합이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을 의미하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용문의 옹구네의 말처럼 강실의 복 중의 아이는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무화시켜 신분으로 인한 원한을 푸는 ‘뽀오영게 질닥음허는 시상’, ‘없던 시상을 새로 낼 그 누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씨 가문의 ‘뿔줄과 가문의 흔들림’이 ‘뿔줄과 가문의 붕괴’로까지 나아간 ‘훼손 상태’와, 상민과 천민의 ‘뿔줄과 가문 섞기’가 ‘뿔줄과 신분 극복 상태’로까지 나아간 ‘회복 상태’를 나타내므로 ‘봉건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강실의 복 중의 아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이야기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에 대한 상민과 천민, 특히 춘복과 옹구네의 극복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대립항이 지배적인 상태에 남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상민과 천민들의 ‘뿔줄과 신분’에 의한 ‘훼손 상태’를 극복하려는 ‘회복 과정’을 그려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신분 제도가 지배적인 상태에 남아 있다는 것은 『혼불』의 서사의 중심에 양반 계급이 위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반 대 천한 신분이라는 대립항을 무화시키려는 상민과 천민의 극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못한 상태가 그 대립항 중 상민과 천민보다는 양반을 옹호하는 쪽으로 서사의 중심을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서사에서 상민과 천민보다는 양반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매안 중심의 서사 과정이 ‘상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신분 제도라는 ‘봉건적 질서’가 작품 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고, 그에 따라 양

---

121) 10권, p.319.

반 계급이 전체 서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세 갈래의 이야기를 이루는 서사 과정이 ‘과정’의 단계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 이유는 『혼불』 고유의 서사문법, 즉 매안 중심 서사에서 만주 봉천 중심 서사로의 확장과 그 결합 때문이다. 정확하게 지적한다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의 ‘핏줄과 가문’이라는 서사적 핵심이 그 의미를 ‘근본과 뿌리’로 확장하여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살펴보았듯이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가 역사에 대한 탐구 등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로 극복되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의 ‘근본과 뿌리’가 ‘성씨, 조상, 고향, 관향’ 등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 근본적 의미는 ‘핏줄과 가문’이라는 것은 앞서 살핀 바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매안 중심의 이야기, 즉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는 ‘상태’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정’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이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에서 ‘핏줄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훼손 상태’로 나아가고,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이 ‘핏줄과 신분 극복’에 도달한 ‘회복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를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을 이끄는 서사적 핵심인 ‘근본과 뿌리’의 근본적인 의미가 ‘핏줄과 가문’이기 때문에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핏줄과 가문의 몰락’으로 나아가면, ‘근본과 뿌리 찾기’라는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의 ‘회복 과정’이 불가능해지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매안 중심의 서사도 모순적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이 ‘핏줄과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훼손 상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도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이라는 ‘회복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이야기의 서사 과정은 ‘과정’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확장되어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므로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을 ‘훼손 상태’로 이끄는 것이 곧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의 조선 민족과 이주민의 ‘회복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이 ‘훼손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도 ‘회복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핏줄과 가문’의 ‘근본과 뿌리’로의 의미 확장으로 이루어진 매안 중심 서사에서 만주 봉천 중심 서사로의 서사의 확장과 두 서사의 결합이라는 『혼불』의 서사문법이 세 가지 이야기 축의 서사 과정을 ‘과정’의 단계에 머물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양반 계급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켜 양반과 양반문화에 대한 내용에 치우치는 서사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 V. 결론

『혼불』은 5부 10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 체계이다. 본고는 이 거대한 서사 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일관적인 중심 서사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혼불』의 세 갈래의 이야기 축인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이야기’,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가 인과적, 논리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서사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문법에 기대어 각각의 이야기 갈래의 서사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들 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매안 이씨 양반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과 그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으로 나누어지고,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과정은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고 있다. 종부와 종손을 잃은 시부의 운명에 의해 ‘훼손 상태’에 이른 이씨 가문에 핏줄을 이어나가고 가문을 지키는 종부로서의 청암부인의 실행이라는 사건이 ‘회복 가능성’이라는 기능으로 결합하고, 여기에 저수지 공사와 완성이라는 사건이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이씨 가문이 ‘회복 상태’에 이르는 ‘훼손→회복’의 기본적인 시퀀스, 즉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암부인 중심의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이 내포하는 의미는 ‘핏줄과 가문 지키기’라 할 수 있다.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 이후의 이씨 가문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전의 서사 과정에서 도달한 ‘회복 상태’에 또 다른 ‘훼손 가능성’이 맞물리고, 여기에 다시 투장 사건, 강실의 임신이라는 사건이 ‘훼손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결합하는 ‘회복 상태→훼손 가능성→훼손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청암부인 중심의 서사에서의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이 서사 과정에서도 저변에 깔려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전 서사 과정의 의미가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 지키기’인 반면, 이

서사 과정은 이씨 가문의 ‘핏줄과 가문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 중 효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회복 가능성→회복 과정→회복 상태에 도달 실패’라는 서사 과정이 나타난다. 효원 중심의 서사 과정은 이것이 이전 서사 과정의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을 극복하는 ‘회복 가능성’으로 시작되어 그 실패로 다시 이씨 가문의 ‘훼손 과정’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 ‘삼입’의 양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은 청암부인의 생애를 반복하는 효원에 의한 ‘핏줄과 가문 지키기’가 실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종가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인 춘복과 옹구네, 우례, 백단과 만동의 서사 과정은 각각 ‘훼손 상태’에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이 맞물리는 ‘훼손 상태→회복 가능성→회복 과정’이라는 기본적인 시퀀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서사 과정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양반 대 상민과 천민이라는 대립항에 의한 천한 신분과 그 대물림이라는 ‘훼손 상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건들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서사 과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씨 가문의 인물들 중심의 서사에서 핵심인 ‘핏줄과 가문’이 이 서사 과정에서 ‘핏줄과 신분’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서사 과정의 의미는 ‘핏줄과 가문 섞기’를 통한 ‘핏줄과 신분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서사 과정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과 결합하여 더 확장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두 서사 과정은 하나의 사건이 두 관점에서 상이한 기능을 하는 ‘연합’의 양상으로 결합을 이루어 복합적인 시퀀스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혼불』의 서사를 이루는 두 갈래의 이야기, 즉 매안 이씨 가문 중심의 이야기와 종가, 거명굴의 상민과 천민 중심의 이야기를 하나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서사 과정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인 시퀀스는 ‘봉건적 질서의 흔들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만주 봉천 중심의 이야기는 매안 중심의 서사에서 서사적 핵심을 이루었던 ‘핏줄과

가문'의 의미가 '근본과 뿌리'로 확장되고, 그것이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이야기를 이끄는 매안 중심의 서사에서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로의 서사의 확장을 이루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서 더 나아가 조선 민족과 조선 이주민, 유랑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와 매안 중심의 서사와의 결합은 창씨개명과 저수지가 마르는 사건이 이씨 가문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가능성'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에서 '훼손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요한 것은 두 서사 과정 간의 관계가 'vs.'와 '=' 두 가지 모두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브레몽이 제시한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결합 양상 중 어느 것보다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안 중심 이야기에서 만주 봉천 중심 이야기로의 서사의 확장과 그 결합으로 인해 보편적, 일반적인 서사문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혼불』만의 서사문법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주 봉천 중심의 서사 과정은 그것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과 조선 민족과 이주민의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훼손 상태'에 미약하나마 나의 존재를 이루어낸 '근본과 뿌리'에 대한 탐구와 조선 민족의 역사에 대한 탐구가 '회복 가능성'과 '회복 과정'으로 기능하면서 결합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 과정의 의미는 '근본과 뿌리'를 잃어버린 '회복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탐구를 하고 있으므로 '근본과 뿌리 찾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혼불』의 세 갈래의 이야기는 각각 기본적인 시퀀스를 이루어내고 있고, 그 기본적인 시퀀스들이 결합하면서 복합적인 시퀀스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세 이야기가 결합한 작품의 중심적 서사 구조를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적 서사 구조를 통해 『혼불』 특유의 서사문법에서 비롯되는 서사적 특징 중 하나인 양반과 양반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친 서사를 설명해낼 수 있다. '핏줄과 가문'의 '근본과 뿌리'로의 의미 확장으로 이루어진 매안 중심 서사에서 만주 봉천 중심 서사로의 서사의 확장과 두 서사의 결합이라는 『혼불』의 서사문법이 세 가지 이야기 축의 서사 과정

을 ‘과정’의 단계에 머물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양반 계급을 서사의 중심에 위치시켜 양반과 양반문화에 대한 내용에 치우치는 서사적 특징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브레몽의 ‘훼손-회복’의 서사문법으로 『혼불』을 분석해보았다. 앞서 언급했지만 브레몽의 서사모델은 보편적인 서사문법이다. 즉, 어느 작품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불』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작품만의 특수성, 즉 브레몽의 서사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각양각색의 결합에 의한 복합적인 시퀀스 형성을 알 수 있었다. 『혼불』은 ‘그 자체가 이론의 생성’이라는 어느 논자의 말처럼 보편성 위에서 특수성을 나타내는 그 자체만의 서사 구조로 특유의 서사문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최명희, 『혼불』, 동아일보사, 1983.

최명희, 『혼불』, 한길사, 1996.

최명희,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리브로』, 한길사, 1996 겨울호  
작가 조명 인터뷰, 「모국어는 우리의 혼입니다.」, 『문학사상』, 1997.12.

### 2. 단행본

강진호 외, 『우리 시대의 소설, 우리 시대의 작가』, 계몽사, 1997.

김치수 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백지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 비평사, 2001.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장세진, 『한국대하역사소설연구』, 도서출판 훈민, 1998.

장일구, 『혼불읽기 문화읽기』, 한길사, 1999.

전라문화연구소, 『혼불의 문학세계』, 소명출판, 2001.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황석자, 『현대 불비평의 이론과 실제』, 신아사, 1993.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3. 학술 잡지

김경원,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는 작업」, 『실천문학』46호, 1997년 여름호.

김열규, 「민속지적 서사문학의 전형을 위하여」, 『한길문학』8호, 1991년 봄호.

- 김현선, 「『혼불』, 우주적 상상력의 총화」, 『문학사상』302호, 1997. 12.
- 방민호, 「무채색의 서사로 완성시킨 소설미학의 새로운 지평-서사의 수평적 확산을 통한 공간 소설로서의 『혼불』」, 『리브로』, 1997년 봄호.
- 이윤영, 「혼불론-인물 유형과 갈등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44집』, 2000.5.
- 장일구, 「교감의 언어, 우리네 이야기」, 『문학정신』, 1997년 봄호.
- 정호웅, 「박물지의 형식」, 『황해문화』14집, 1997년 봄호.
- 한일섭, 「서사문학 플롯의 현대적 개념」, 『서강인문논총』제 9집, 서강인문과학연구소, 1993.
- C. Bremond, "The Logic of Narrative Possibilities" in *New Literary History* 11, tr. by E. D. Canolun, 1980.

#### 4. 학위 논문

- 김용락, 「최명희 '혼불'의 배경 및 인물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은경, 「토지의 서사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김현숙, 「『혼불』의 서정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박현선, 「최명희 소설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1.
- 오세은, 「여성 가족사 소설 연구-『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우혜영, 「최명희 『혼불』의 담론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윤정, 「최명희 『혼불』의 인물유형 연구-육망의 발현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이일랑, 「최명희 『혼불』의 가문의식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현하, 「최명희의 『혼불』 연구-종부 의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혜경, 「현대 한국가족사 소설 연구-『토지』, 『미망』, 『혼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장일구, 「소설 텍스트의 연행 해석학 시론-김유정 소설과 최명희 『혼불』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ABSTRACT

##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Choe Myeong-hi's 『*Honbul*』

**Kang, Hye-suk**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Honbul*』 has a huge narrative system consisting of five parts and ten volumes. Existing discussions put emphasis just on subsidiary narration belonging to a side branch rather than on the area belonging to the central trunk which leads an extensive narrative system but failed to reveal key narration as a structure in which three axes of stories in the work related to each other in a causal and logical way. For this reason, this paper analyzed narration which forms the central trunk of the extensive narrative system of 『*Honbul*』 and discovered its meaning according to the narrative grammar of Degradation-Amelioration by C. Bremond.

Narration that centers on the Maean Lee family is divided into the narrative process of Degradation → Amelioration that centers on the eldest daughter-in-law of the head family, Cheongam, and that of the subsequent Amelioration → Degradation. Cheongam-centered narrative process for the Lee family forms an elementary sequence of the Degraded State →

Virtuality of Amelioration → Ameliorating Process → Ameliorated State by the narrative key of *blood and clan*.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narrative process implies *preserving blood and clan*.

Narration of the Lee family after Cheongam-centered narration makes the Ameliorated State reached through the previous narrative process in gear with another Virtuality of Degradation, showing the elementary sequence of the Degraded State → Virtuality of Degradation → Degrading Process again. And the narrative key of *blood and clan* forms the basis to produce a meaning; however, this narrative process means *swaying of blood and clan* of the Lee fami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narrative process.

Among the Degrading Process of the Lee family, there is a narrative process of Virtuality of Amelioration → Ameliorating Process → Failure to Reach Ameliorated State that centers on Hyowon, grandson's wife. Hyowon-centered narrative process begins with Virtuality of Amelioration to overcome the Degrading Process for the Lee family and comes to be in gear with the Degrading Process for the family due to Failure to Reach Ameliorated State, which is connected to the narrative process for the Lee family in the form of the *enclave*. And this narrative process means the *failure to preserve blood and clan*.

Chunbok, Onggune, Urye, Baekdan, and Mandong, who lead narration centering on the common and lowly people, cause or experience events to overcome the Degraded State of the humble class and its hand-down in the opposing pattern of the aristocratic class versus the common and low

class, and form an elementary sequence of the narrative process of developing into Virtuality of Amelioration and the Ameliorating Process, or Degraded State → Virtuality of Amelioration → Ameliorating Process. This means that *blood and clan*, which is the key of narration centering on the Lee family, is extended into *blood and social statu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narrative process implies *overcoming blood and social status* by *mixing blood and cla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ir narrative process and that of the Lee family are elementary sequences, respectively, and form a complex sequence through connection in the form of *association* by which an event has different functions from two perspectives. It is therefore possible to regard the story centering on the Lee family which forms narration of 『*Honbul*』 and that centering on the common and lowly people as one structure. And the complex sequence through connection of the two narrative processes has a meaning of *swaying of the feudalistic order*.

Narration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shows extended narration from *blood and clan* to the narrative key of the *basis and roots* with the story of Chosun people, Chosun immigrants, and wanderers. Since narration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is a new story different from other two ones, to connect the Mae-an-centered story with one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forms the narrative grammar specific to 『*Honbul*』, which is hard to explain with C. Bremond's universal narrative grammar. The connection makes events functioning as Virtuality of Degradation in the narrative process for the Lee family function as the

Degraded State in that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And the narrative process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forms an elementary sequence of the Degraded State → Virtuality of Amelioration → Ameliorating Process from the Degraded State in which main characters, Chosun people, and immigrants lost their *basis and roots* to connection of Virtuality and Process of Amelioration through search for their own selves and Chosun people's *basis and roots*.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is narrative process means *finding the basis and roots*.

Three stories in 『Honbul』 form elementary sequences, respectively, which are united to form a complex sequence. Consequently, the complex sequence to which three stories are united is possibly the central narrative structure of the work. And through the central narrative structure, it is possible to explain the narrative feature with emphasis on the content of the aristocratic class. Since the meaning of *blood and clan* is extended to form the narrative key of the *basis and roots*, to affirm the Ameliorating Process of *finding the basis and roots* in narration centering on Bongcheon, Manchuria, serves to negate the Degrading Process of *swaying of blood and clan* in narration centering on the Lee family. Although Maeon-centered narration shows *swaying of the feudalistic order*, the *feudalistic order* in the form of *blood and social status* has a constant influence in the work; consequently, overall narration is focused on the content of the aristocratic class.